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94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6월 26일)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이번엔 '불교 AI뮤직' 인기 'Hip한 불교' 열풍 이어간다

유튜버 '곰딴', 반야심경 AI뮤직 제작
한 달 만에 32만 조회수 기록 '인기'
진우 스님 '선명상TV' AI뮤직 업로드
스님 법문 핵심을 노래로 대중에 알려
조계사 AI뮤직 1분 숏츠 콘텐츠 공개
부산국제불교박람회 'AI뮤직 공모전'도

신중일 · 임은호 · 김내영 기자

"5초만 기다려 마음을 들여다봐. 괴로움 벗어나 자유를 찾아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깨우면 진정한 행복이 그 속에 있다네."

7월 23일 열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아카데미' 제5강에 앞서 흥겨운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는 진우 스님이 선명상 아카데미에서 설한 법문의 핵심을 가사에 담아 AI(인공지능)로 만든 노래, 일명 'AI뮤직'이다. 현재 진우 스님의 유튜브 채널 '선명상TV'에 업로드돼 있다.

AI툴로 제작한 '불교 AI뮤직'이 '힙(Hip)한 불교' 열풍을 이어갈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

'불교 AI뮤직'을 대중적으로 알린 것은 유튜버 '곰딴(GOMDAN)'이다. 곰딴은 지난 6월 9일 '반야심경(Heart Sutra)'을 공개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확산되면서 인기를 끌었다. 현재 해당 콘텐츠는 32만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이후 곰딴은 '반야심경'을 2시간 연속으로 들을 수 있는 콘텐츠와 '참회 천수경' 등 '불교 AI뮤직' 콘텐츠를 잇달아 제작·공개하고 있다.

곰딴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식당을 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만든 노래인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제는 모두의 '반야심경'이라고 생각한다. 불교를 즐겁게 공부하며 많은 사람과 불교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불교계 내부에서도 '불교 AI뮤직' 콘텐츠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중심에는 진우 스님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진우 스님은 유튜브 채널 '선명상TV'에 이어 '불(佛)닦는 소리' 채널을 최근 개설했다. 최근 업로드된 '부처님도 비트타셨잖아요'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힙합 선율에 얹힌 생활 법문 가사가 '찰떡'같이 어울린다. 또 다른 콘텐츠인 '반야심경 보컬로이드 리믹스'는 반야심경을 랩으로 풀어냈다. 일반 대중가요로 불려져도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도록 제작된 게 특징이다.

해당 콘텐츠의 제작자는 김영찬 조계종 홍보위원이다. 올해 2월 동국대를 졸업한 김 위원은 인공지능 챗봇 '스님AI'을 제작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열암곡 마애부처님 AI 전시, 연등회 등 다양한 불교행사에서 획기적인 콘텐츠를 선보인 능력자다. 그의 합류로 채널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채널 관계자는 "진우 스님의 선명상 아카데미 강의를 직관적으로 전달되는 음악과 연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AI뮤직 제작을 떠올렸다. 법문 내용을 던져주고 핵심 키워드로 명령을 해 가사를 뽑고, 선율을 붙여 콘텐츠를 생성했다"면서 "앞으로 '불닦는소리' 채널에는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를 함께 부르는 신조어)'를 타겟으로 한 AI뮤직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담화 원명 스님)도 AI뮤직 콘텐츠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 '여기는 대웅전 꿈을 꾸는 곳'이라는 제목의 콘텐츠는 약 1분가량의 숏츠로 제작됐다.

이해진 조계사 홍보팀장은 "조계사는 1년 전부터 시대에 맞춘 포교 방안을 모색하며 다양한 AI어플리케이션을 구입해 활용방법을 고민했다. 최근 AI 발전속도가 빨라지며 AI뮤직 콘텐츠 제작에도 속도가 붙었다"면서 "'여기는 대웅전 꿈을 꾸는 곳'은 조계사 연꽃축제 홍보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앞으로는 젊은 감성으로 불자들에게 다가가는 AI뮤직 콘텐츠를 제작해 사찰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4 부산국제불교박람회'는 AI불교음악 공모전 열고, 열풍을 이어간다. 7월 24~3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심사위원으로 뉴진 스님과 유튜버 곰딴, 불교크리에이터 강산이 참여한다.

'AI 불교음악 공모전'은 참가자격이나 장르 등의 제한은 없지만 저작권에 등록되지 않은 창작곡만 공모가 가능하며, 전체 곡의 30% 이상이 AI 작곡 프로그램으로 제작돼야 한다. 8월 2일 오후 6시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수상자가 공개된다.

대상 1명은 상장과 상금 50만원이 주어지며,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1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부산국제불교박람회 홍보에 활용되며 박람회 현장에서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무료 공개될 예정이다.

박람회 관계자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는 '재밌는 불교 2탄'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 '힙한 불교', '재밌는 불교' 등을 콘텐츠로 접하며 불교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전통불교문화의 저변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인터뷰 3면〉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스님이 7월 24일 열린 대종사 품서식에서 선묵 고담 스님에게 법계증과 가사고리, 불자를 전달하고 있다.

태고종 대종사 14명 탄생…"종단 중흥 견인"

7월 24일 대종사 법계 품서식
종정예하 운경 스님 법문 설해
"어른으로 권위를 갖추라" 당부



태종사 품서식 이후 이뤄진 기념촬영 모습.

태고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에 교육원장 재홍 스님 등 14명의 스님들이 품수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7월 24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2024년 대종사 특별 법계 품서식 및 연찬회'를 봉행했다.

종정예하 운경 스님의 증명으로 봉행된 이날 품서식에는 원로의장 호명 스님, 총무원장 상진 스님, 호법원장 혜일 스님,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예경실장 동허 스님 등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법랍 40년·세납 65세 이상으로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대종사를 품수한 스님은 △지암 재홍 △묵림 종매 △선묵 고담 △지산 도인 △화동 지성 △법선 상명 △성파 혜각 △록담 무덕 △설봉 동표 △호산 상윤 △관응 월인 △청암 청보 △지환 경봉 △현광 구담 스님 등 14명이다. 종정예하 운경 스님은 대종사 품수 스님들에게 법계증과 대종사를 상징하는 가사고리, 불자를 수여했다.

운경 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단 어른으로서 권위와 품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운경 스님은 "오늘 대종사 법계 품수를 받은 스님들은 종단 최고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갖게 됐다"면서 "종단의 어른으로서 권위와 품위를 갖춰달라. 또한 어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종단 발전과 중흥을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승가의 가풍은 수행자 개개인의 엄중한 위의와 엄격한 위계질서에 근본을 두고 있다"면서 "종단의 큰 어른으로서 후학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신 스님들의 대종사 품서를 계기로 반듯한 종단 분위기가 마련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단은 새로운 천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종풍 진작의 열기가 가득하다"며 "오늘 품서식을 계기로 종단 큰 어른으로서 지혜와 경륜을 통해 올바로 나아갈 길을 지도편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원로의장 호명 스님은 축사를 통해 "법계는 종단 위계질서으로 법계 품수자는 공인된 권위와 함께 종단 부양책무와 사회교화의 책임을 지는 승계(僧戒)의 상징"이라며 "대종사 법계 품수식을 통하여 종단의 위계와 기강이 더욱 확립되고 종지종풍이 세상에 드날려 종단의 중흥불사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호법원장 혜일 스님은 "대종사 법계 품수자들은 종단 지도자로서 깊은 애종심 그리고 충분한 학식과 수행력을 겸비하셨다"면서 "품서식을 통해 종단의 기강과 위계가 더욱 확립되고 종단이 크게 발전하는데 대종사 품수자들이 많은 역할과 기여를 바란다. 호법원도 종단의 근간인 종헌종법을 중심으로 종단 위계와 승풍 진작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여름휴가로 다음주 쉽니다.

육조정맥선원
www.zenparadise.com

생사해탈을 위한 '3년결사안거' 모집

생사해탈한다는 특달한 각오로
3년 동안 입출퇴를 하지 않고
농선 대원선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면
반드시 3년 안에 내 마음을 찾아
마음이 내가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입방각서 : 3년결사안거 중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의와 불만을 절대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그 어떠한 벌칙도 감수하겠습니다.



1000명 앞에서 좌탈입망하신
전강 전법 대선사

지금 불교계에 스승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선 대원선사는 현재 90의 연세로, 64년 전인 26살 때부터 120세까지 수명을 정해놓고 사시면서, 간절히 깨닫기를 서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직접 죽비를 잡고 내 마음을 찾아 마음이 내가 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기 위하여 '3년결사안거'를 단행하고자 하십니다.

농선 대원선사의 법사이신 전강선사는 1000여 명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법상에 올라 법문하신 후, 앉은 자리에서 열반에 드셨고, 은사이신 해인사 인곡선사도 나고 죽음을 자재하셨으며, 제자인 소진추, 전대각월 불자님도 좌탈입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생에 반드시 내 마음을 알아 생사해탈한다는 특달한 각오로 3년 동안 입출퇴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농선 대원선사의 지도를 따른다면, 누구라도 승속과 종파를 초월해 입방하여 반드시 마음이 내가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만 끊어지면 내 부모 처자식은 그만두고 내 몸마저도 한 점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나이겠습니까? 이 생사대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뜻을 지닌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입방요건 : 나이 (30~60대 남 · 녀) / 정신적, 신체적 건강한 분 / 제출서류 (입방각서, 건강진단서) / 접수기간 2025. 01. 01 ~ 2025. 12. 31 / 문의 010-8670-1445

‘불교 대법회’ 본격화…“국민 평안 앞장”

봉행위원회, 7월 27일 첫 회의 개최해
‘K-선명상’ 선포…간화선 대중화 초석
진우 스님 “국민 공감하는 대법회로”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국민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전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2024 불교도 대법회’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도 대법회 봉행위원들에게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대법회가 되도록 다 함께 역량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2024 불교도 대법회 봉행위원회(봉행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봉행위)는 7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첫 확대회의를 열고 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024 불교도 대법회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행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불교도가 모일 땐 좋지 않은 주변 상황이나 종단 내 상황에 따라 항의 또는 궐기 형태가 많았다. 그렇기에 국민에게도 편치 않은 시각이 있었다”며 “불교가 가진 장엄하고 거룩한 전통 의식을 여법하게 보여준다면 오해를 불식시키고, 훨씬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고유한 불교 의식을 선보이면서도 그 속에 대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3만명의 불자가 동시에 수계하는 법회에선 생명을 죽이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의 계를 기본으로 삼아 대 국민적 운동을 펼치고, 600명의 스님이 함께 공양받는 법회에선 어른에 대한 공경, 스승에 대한 존경, 부모님에 대한 효도 등 존중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또 진우 스님은 불교도 대법회가 조계종의 종지를 구현하는 간화선을 더욱 견고히 하는 단계라고 역설했다. 스님은 “간화선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긴 쉽지 않다. 명상으로 준비하고, 점차 명상의 단계를 높여가면 그 최정점에는 간화선이 있다”며 “K-선명상은 그 최정점인 간화선을 정복하는 그 지점까지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28일은 ‘K-선명상’을 선포하는 날이다. 조계종이 불교 장자종단으로써 국민 마음을 평안히 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2024 불교도 대법회-마음의 평화,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 선명상 대회’ 주요 행사 기본 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4년 불교도 대법회’는 9월 23~28일 서울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와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열린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증명하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봉행위원장을 맡는다. 주요행사로 △전통문화 전시 및 체험부스 운영 △수계법회, 승보공양 등 전통문화 재현 △2024 국제 선명상 대회 △국민음악회가 있다.

전국 불자들을 대상으로 종단 차원에서 진행하는 최초의 연합수계법회도 열린다.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전계사로 원로의원이 지도위원으로 나선다. 교구본사와 계층별 수계대상자 등 약 3만명이 수계법회에 동참한다.

수계법회 후에는 원로위원, 본사주지, 종회의원, 각급 종정기관 위원 등 600명을 대상으로 승보공양 법회가 봉행된다.

‘2024 불교도 대법회’의 하이라이트인 ‘2024 국제 선명상 대회’는 9월 28이 오후 5시부터 광화문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대회로 선명상을 통한 마음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주재 하에 해외 명상가와 국내 전문가들이 지도하는 선명상 실참이 준비됐다. 우파야 젠 센터 주지 로시 조한 핼리팩스, 달리이라마 영어 통역 전담 툽텐 진파, 전 구글 소프트엔지니어 차드 멩 탄, 잡지 ‘마인드풀니스 인 벨’ 편집장 팝루 스님, 수행안거센터 운영자 직메 린포체 등이 동참한다.

국제 선명상 대회는 30일까지 서울 봉은사, 경기 봉선사, 한국문화연수원, 서울 홍대선원, 부산 쿠무다, 계룡 홍제사 등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며 10월 1일 국제 컨퍼런스 이후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날 ‘2024 불교도 대법회’의 발전 방안 모색하는 논의도 진행됐다. 총무원 교육부장 덕림 스님은 “전통문화 재현 행사에 법음, 범패, 작법 의식이 더해지면 1300년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의 신비스러운 면모를 더욱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다”고 건의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어떻게 하면 소리, 범패, 악기, 사물이 조화를 이뤄낼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불자회 제3회 회장 취임식에는 각계 각층에서 100여 명이 동참했다. 사진=김민재 수습기자

홍철호 대통령실불자회장 취임… “불교와 동행”

7월 24일 조계사서 취임법회 봉행
“공명정대, 공평무사한 자세” 약속
진우 스님 “마음 꾸준히 돌보길”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실불자회 제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홍철호 신임 회장은 ‘부처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나라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실불자회는 7월 24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3대 대통령실불자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홍철호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국가가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들을 살피는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제3기 대통령실 불자회가 시작되는 오늘, 불자회 또한 그 뜻을 받아 불교와 동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 회장은 불자 기업인 봉사단체 ‘보현선행회’ 활동, 3000배 정진법회 참석 등 자신의 신행담을 이야기한 뒤 “부처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겠다”며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대통령과 국민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대통령실 업무가 과중한 만큼 직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 또한 강도가 높을 것”이라며 “바쁨을 핑계로 마음을 내버려두지 말고 꾸준히 돌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정진은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으로 회향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자리이타의 실현”이라며 “홍철호 회장과 대통령실 불자회원 모두 한마음으로 정진해 부처님 자비를 우리 사회 곳곳에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9월 진행될 국제 선명상 대회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K-선명상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불자회는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을 향한 소중한 인연으로 행복한 국민의 삶을 위한 헌신을 약속했다. 이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깨달으며 ‘국태민안, 국민행복’이라는 대통령실 불자회의 목표를 다시 되새기겠다”며 “공무를 성실히 수행해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대한민국이 더욱 번영하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발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원했다.

홍철호 회장은 취임식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 620만원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진우 스님 “선명상으로 감정 덩어리 컨트롤을”

7월 20일 한국명상지도자포럼서 강조해
‘선명상 대중화’ 법문…회원들 동참 권선



“선명상이 우리 국민들에게 평안함을 줄 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행복과 번영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7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한 제5차 한국명상지도자포럼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마음 문제 해결을 위한 선명상을 실천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사진〉

‘명상의 대중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특별 초청 강연자로 나선 진우 스님은 이날 ‘선명상 대중화’에 대해 법문했다. 진우 스님은 “물질만능주의 시대, 사람들에게 마음을 스스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선명상 홍포에 직접 뛰어들었다”면서 “선명상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 정부와 협의, 전국에 선명상센터를 만들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문에서 진우 스님은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도래하는 등 급진적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있지만 우리는 괴로움을 떨쳤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을 때가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며 “연기법을 통해 제대로 관할 때, 모든 것이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제거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스스로 마음을 관해 감정 덩어리를 컨트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회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스님은 “회원들은 굉장한 자산이다. 전문가들로서 선명상 보급의 일원이 돼달라”면서 “선명상이 잘 홍포돼 국민들 마음 안정에 도움을 줄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진우 스님, 이헌승 정각회장에 화합 정치 당부

7월 23일 “국민 행복 프로젝트에 관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에게 화합의 정치를 통한 상생 사회 구현을 당부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7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헌승 정각회장의 예방을 받고 “국회의원들이 잘 화합하는 정치로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면서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행복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헌승 정각회장은 22대 국회 정각회원이 역대 최다 56명이라고 소개한 뒤 “화합으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각회 내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부처님 가피 속에 한마음 한 뜻으로 의정활동 하고, 난관에 봉착하면 원장스님을 뵙고 가르침을 받겠다”고 다짐했다. 이헌승 회장의 정각회장 취임법회는 9월 2일 오전 11시 국회 정각선원에서 봉행된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4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 고찰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마음과 과학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세대별, 대상별 다채로운 법회프로그램 등

일 정 : 2024년 8월 28일(수) ~ 30일(금) 2박 3일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강사진 :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박종래 교수(서울대),
이창수 교수(경희대), 황수경 교수(동국대) 등
교육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30점)
정 원 : 5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반야심경' 사랑에 감사…내게 불교는 지혜 원천"

Interview
AI뮤직 크리에이터 곰딴

어머니 위해 만든 '불교 AI뮤직'
알고리즘 가피 받아 조회수 급증
천수경 봉독 중 睡魔 이기며 희열
'참회 천수경' 제작으로도 이어져
"불교 공부하며 공덕 나눔" 발원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AI뮤직'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시작을 알린 크리에이터가 유튜버 '곰딴(Gomdan, 이하 곰딴)'이다. 지난 6월 9일 올린 '반야심경(Heart Sutra)' AI뮤직 콘텐츠는 현재 32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불교 AI뮤직'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후 곰딴은 구독자들의 성원으로 '반야심경' 2시간 연속 청취 콘텐츠와 〈천수경〉을 바탕으로 한 '참회 천수경' 등을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

곰딴의 '반야심경' 콘텐츠에는 '이거 듣고 불교 입덕(입문을 의미하는 은어)함' '천주교 신자이지만 부처님 법이 이리 흥겨울지 몰랐다' 등의 댓글 1100여 개가 달렸다. 이웃 종교 신자마저 매료시킨 AI뮤직 콘텐츠 '반야심경'의 제작자 곰딴을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신원 공개는 원치 않아 유튜브 채널 이름으로 대체한다.

이하는 이메일로 이뤄진 일문 일답.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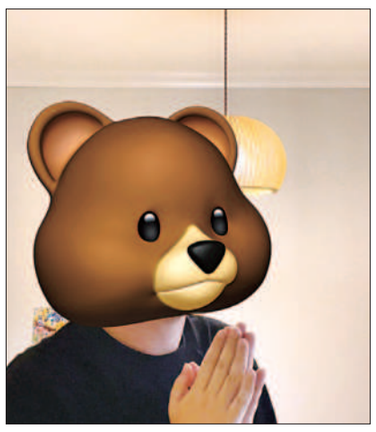
A 저는 대구광역시 소재 비영리재단법인 교육기관에서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는 직장인이자 '곰딴(곰들의 딴 길찾기)'이라는 콘텐츠 융합 문화산업 관련 스타트업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귀여운 4살배기 딸아이의 아빠이며, 꿈 많은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불자이시고 친가는 전통적으로 불교집안입니다. 가족 중에는 비구니스님(현재는 환속)이셨던 분도 있습니다.

Q 원래 음악을 했는가요.

A 중학교 때 처음 컴퓨터음악(MIDI, DTM)을 접한 이후, 음악을 공부해 싱어송라이터, 인디뮤지션이자 작곡가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학업 및 취업 문제, 생계 등으로 인해 현실의 벽을 실감하고 전문 음악인의 길을 포기했죠.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며 취미로 음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Q '반야심경' 제작 계기는.

A 어머니께서 경북 청도에서 자그마한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업력이 15년으로 나름 지역 맛집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집 근처 사찰에 기도를 다녀오는 불자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음악을 참 좋아하시는데, 정작 몇십 년동안 음악을 했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곡 하나를 만들어 드린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가게에 편하게 틀어놓고, 기분 좋게 들으실만한 음악을 만들어 선물로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반야심경'이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AI뮤직 크리에이터 유튜버 '곰딴'.


'반야심경' 콘텐츠에 사용된 일러스트. 곰딴이 직접 제작했다.

Q '반야심경'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A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어머니를 위한 작은 마음에서 만든 곡이 이렇게나 많은 분께서 좋아해 주시고 들어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늘어남에 따라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이제는 모두의 '반야심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곰딴 채널 구독자 지칭)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Q '반야심경'을 2시간 분량으로 제작했습니다.

A 큰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가급적 선생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염원하시는 바에 또 부응을 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1~4시간 버전을 요청하셨고, 그 바람을 이뤄 드린 것 뿐입니다.

제작 당시에는 비록 영상 분량으로 인한 용량의 압박은 있었지만 조금이나마 쉽고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게 도리인 것 같았습니다.

Q 최근 '반야심경' 커버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A '반야심경'을 커버한 진세란 님은 네이버 치지직에서 개인방송으로 하시는 분이며, 불자이십니다. '반야심경'이 막 알고리즘을 탈 때 개인 작업을 위해 연락주신 크리에이터가 몇 분 계셨는데, 진세란 님이 그 중 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AI뮤직 제작자 '월터의 상상'님도 반야심경 커버곡을 제작해 보고 싶다고 해 기분좋게 응원해 드렸죠. 모두 조회수도 잘 나오고 만족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Q 최근 '참회-천수경'을 제작하셨습니다.

A '반야심경'은 순수하게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이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후속작에 대한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후속작을 고민하면서 제가 불교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얕고 미천하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부터 인연이 있던 불교 크리에이터 다문(Pure_ananda) 님과 프라즈나(prajna_sso) 님이 경전의 다양한 종류와 형식, 역사 등의 기본적인 지식부터 하나씩 알려줬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Q '참회-천수경' 제작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A 다문, 프라즈나 님을 만나기 전날 직장 업무와 음악 제작으로 밤새 일해 엄청나게 피곤했습니다. 두 분을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죄송하게도 졸고 깨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구업진언을 외고, 십악참회문을 읽고, 참회진언을 외우자마자 잠이 싹 달아나며 알 수 없는 희열이 몰려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십악참회를 중심으로 '참회-천수경'이라는 곡을 쓰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다음날 새벽, 물 흐르듯 〈천수경〉의 내용을 토대로 전체 흐름을 구성하게 됐고, 곡도 명쾌하게 진행되며 '참회-천수경'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Q 무교라고 했는데 종교에 관심이 많은가요.

A 제게 무(無)라는 것은 '없는 것'인 동시에 '모든 것'입니다. 사실 제 이름에 '검을 현(玄)자'가 들어가는데요, 아버지께서는 "현은 우주와도 같다. 우주의 무가 곧 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제 나름대로 탐구를 하였는데, 우주 공간은 검은 바탕에 아무 것도 없어 보이지만, 암흑물질로 존재하며, 비어있는 공간에도 사실은 산소와 질소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에 정의나 가치, 의미, 형태를 두지 않습니다. 불교의 자비와 깨달음, 기독교의 사랑과 자기희생, 유교의 인(仁)·예(禮) 등은 모두 저에게는 빛나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Q 향후 어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으신지요.

A 이왕 이렇게 된 것, 불교를 즐겁게 공부하여 그 공덕을 나누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재단을 설립해 예술, 문화, 인문, 종교 전반에 재능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러닝메이트(Running Mate)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크리에이터 활동은 그 출발선에서 막 뗀 첫 발걸음이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월결사, 불교 동아리 2배 늘렸다

1년 간 동아리 58→104개 증가
상반기에 4억9000여 만원 지원
'영캠프', 대법회 참여 연계키로

한국불교 대학생 전법 불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재)상월결사(이사장 호산 스님)의 활동으로 대학 불교동아리가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7월 22일 동국대 본관 5층 건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상반기 사업 보고 및 하반기 전법 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상반기 사업 보고를 통해서는 대학생 전법 인프라가 1년 사이 빠르게 확충됐음이 확인됐다. 보고에 따르면 2023년 7월 6일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전국 대학 불교동아리는 58개에서 104개로 늘었다. 이중 81개 대학 불교동아리가 운영지원금을 지원 받았으며, 육군사관학교 및 6개 사관학교와 육군 훈련소 및 5개 훈련부대에 불교동아리 및 법당 운영지원금이 전달됐다. 이에 따라 상월결사는 상반기에만 불교동아리 및 법당에 4억 4880만원의 운영기금을 지원했다. 또한 창립을 준비 중인 불교동아리 44곳에 총 4400만원의 창립준비지원금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집행위는 하반기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영캠프'를 현재 조계종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불교도 대법회'에 참여로 연계키로 했다.

박기련 상월결사 정책기획단장은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상월결사 영캠프'를 제언하신 것은 전국 대학생들을 모아 역량을 결집하는 데 기인한다"면서 "동국대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불자학생들의 영캠프는 내년까지 차근차근 준비해도 될 것 같다. 올해에는 9월 28일 예정된 불교도 대법회에 대학생 불자들이 참여하는 '영캠프'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월결사는 하반기부터 전국 대학 불교동아리에 불단(佛壇) 조성 및 불구(佛具)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상월결사 사무국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대학별 해당 교구본사와 동아리 지도법사·교수 협의와 집행위 심의를 통해 지원되며, 오는 9월 중 사업 전반에 대한 공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미얀마 군부, 인권·종교 탄압 중단하라"

불교인권위 7월 22일, 국회서
"국제사회 관심 · 연대" 촉구



지난달 19일 미얀마에서 불교계 원로 스님 바단타 무닌다비완사(78)가 군부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불교인권위원회가 이를 규탄하며 미얀마 군부를 향해 "인권·종교 탄압을 중단하고, 무분별한 학살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스님)는 7월 2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미얀마 군부의 종교·인권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성명문을 통해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정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고 함께 연대해야 한다. 우리는 미얀마 시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 **성지순례 안내**



- 백중 회향 및 가을순례를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입니다.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동참과 기도는 희망의 미래불교를 만드는 불사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순례 안내 : 사찰(단체)의 경우 미래본부로 미리 상담 또는 일정을 알려주셔요
- 열암곡 현장 기념품 지급 : 기도의례집, 개인방석, 생수, 기념품 등
- 필요한 경우 기도법사 스님이 동행안내 및 기도를 진행해 드립니다.



● 순례 문의 : 02-730-0883 (조계종 미래본부) / 열암곡 순례정보 ▶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총 무 원 장 진 우

「천년을 세우다」 후원동참 농협 301-0248-0882-41 (예금주 아름다운 동행) 문의 : 02-6273-0108 ARS : 060-700-0012 (한통화 3천원)

무더위 속 한줄기 청량함…문경서 열린 선명상 한마당

참선지도자협회, 청 · 장년 명상힐링캠프 성료

7월 13~20일 문경명상마을서
불교 선칠(禪七) 수행 차용
7박 8일 특별한 명상 여정
청 · 장년 70여 명 참가하여
선원장 각산 스님 지도받아

문경=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세속의 찌든 습을 내려놓고 일주일간 자기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한 명상 한마당이 문경 세계명상마을에서 열렸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회장 각산 스님)는 경북 문경 봉암사 인근에 위치한 문경세계명상마을에서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청·장년 명상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그동안 청·장년을 구분해, 2박 3일 등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어 온 캠프를 통합하여 7박 8일로 기간을 대폭 늘리고, 청·장년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서로간에 소통을 하며 함께 도반으로서 수행해 나갈 수 있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캠프 동안에는 선명상 집중 수행인 '선칠(禪七)수행'으로 정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선칠수행'은 새벽 3시부터 밤 12시까지 7일간 모든 것을 멈추고 수행에만 집중하는 수행 과정이다.

문경세계명상마을 선원장이기도 한 각산 스님이 법문과 문답, 인터뷰로 이들의 수행을 이끌었으며, 행선을 비롯해 종의 울림에서 고요함을 찾는 종송명상과 염력명상 등도 진행됐다.

7월 20일 회향식에서 만난 참가자들은 8일간의 명상수행이 인생의 큰 경험이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장년명상캠프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선원장 각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구시에서 온 서병우 씨(44)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료받았다. 다시 일상에 복귀하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수행하시는 모든 스님과 봉사자 분들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도 저절로 따뜻해졌다. 여기서의 수행을 바탕으로 일상에 복귀해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에서 온 변유진 씨(24)도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천지개벽을 겪고 간다. 많은 청년들이 명상캠프에 참여하여 내 안에 본성을 발견하고 행복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선원장 각산 스님이 진행하는 명상문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여수시에서 온 오아련 씨(42)는 "스님의 법문에 따라 수행하고 특히 점검을 받으니 의문점이 해결되고, 도반들이 함께 수행문답을 진행하며 잘 모르는 부분도 공감하니 더 배울 수 있었다"며 "스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나와 끊임없이 스스로 대화하는 길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각산 스님은 이번 캠프 참가자들을 향해 일상생활에서도 7박 8일간 배운 수행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수행이 몸에 베이면 딱 앉는 순간 번잡한 생각이 사라지고 고요하게 돌아간다. 이것이 번뇌가 있어도 번뇌가 없는 상태"라며 "우리나라 한국불교에 여러 전통수행이 있지만 현대화된 수행을 통해 삼도를 갖추고 나면 꿈을 꾼 것이 펼쳐지고, 마음이 가는대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남극점에 최초로 도달한 아문센 일화를 설명하며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환경에 맞춰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미세한 변화에 적응해가며 생활로 돌아가서도 꾸준하게 수행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선방으로 현대화된 선명상을 보급하고 있는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을 뒤로 하고, 다시 생활속으로 들어가는 캠프 참가자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한편, 문경세계명상마을은 8월 9일부터 16일까지 7박 8일간 '간화선과 초기불교 통합수행'을 주제로 선칠수행 과정을 진행하며, 9월 6일부터 8일까지는 60기 명상입문반을 연다.

사찰음식 '장인' 도입…동희 스님 등 19명 위촉

문화사업단, '제1회 장인' 위촉식

1급 6명 · 2급 13명으로 최종 선정
명장 · 전문조리사 격차 해소 기대

사찰음식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장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기존 시행 중인 '사찰음식 명장 자격제도'와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제도' 간 격차를 해소하고, 사찰음식 세계화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7월 23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화엄실에서 '제1회 사찰음식 장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장인 1급 6명과 2급 13명 등 총 19명의 스님에게 사찰음식 장인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회 사찰음식 장인 위촉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찰음식 전문성을 인정해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사찰음식을 보급·계승하는 활동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사찰음식 장인은 2단계를 과정을 통해 1급과 2급이 구분된다. 우선 문화사업단에서 각 급수 대상자를 경력·추천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장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위촉된다.

사찰음식 장인 1급 대상자는 사찰음식 정규강좌(초·중·고급) 강의를 180회 이상 진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급 대상자는 문화사업단 지정 교육 강의를 30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 경력 산정 기준과 별개로 문화사업단장 또는 사찰음식 명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사찰음식 장인 선정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번 사찰음식 장인 1급으로는 △동희 스님 △법송 스님 △동원 스님 △여거 스님 △도림 스님 △법해 스님이 위촉됐다. 장인 2급으로는 △주호 스님 △성견 스님 △성화 스님 △경운 스님 △형민 스님 △동화 스님 △지견 스님 △유화 스님 △정효 스님 △중제 스님 △보전 스님 △혜성 스님 △혜범 스님이 선정됐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한 분야에서 오래 종사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앞으로는 사찰음식 '장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찰음식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상월결사, 군포교 기금 1억1000만원 지원

7월 19일 봉선사 청풍루서
사관학교 5곳 교육부대 6곳
"군포교, 한국불교 중흥 · 중심"



상월결사가 군종특별교구에 군포교 운영지원금 1억1000만원을 쾌척해 군인 불자 전법에 박차를 가했다.

상월결사(이사장 호산 스님·봉선사 주지)가 7월 19일 남양주 봉선사 청풍루에서 '2024년 상월결사 군포교 운영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상월결사는 사관학교 5곳(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군국간호사관학교), 교육부대 6곳(육군훈련소, 육군학생군사학교, 육군부사관학교, 해병대 교육훈련단, 공군 교육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등 총 군종특별교구 11개 기관에 각 1000만원, 총 1억1000만원을 전달했다.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상월결사는 대학생 전법을 위해 시작됐지만 대학생이 군인이 되고, 군인이 제대 후 대학생이 된다. 군인 불자 포교가 대학생 전법만큼 중요한 이유"라며 "군포교가 바로 한국불교 중흥이자 중심이 될 것이니 마음을 함께 모아달라"고 밝혔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상월결사가 원력을 모아준 덕분에 '감로수'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전법에 매진해 1년에 10만명 이상의 수계 군장병을 배출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원금을 받게 된 해병대 교육훈련단 금하 스님은 "소중한 지원금 덕에 군포교를 더 활발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수계식, 찾아가는 법회 등 다양한 전법 프로그램으로 장병들이 친근하게 불교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양주 봉선사=김민재 수습기자

선업 스님 "정보 과잉 시대, 모름서 해답을"

국제포교사회 '열린대법회'서

'화두선과 국제전번' 주제 법문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넘쳐나는 정보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에서 소외될까 불안하고 '앎에 대한 강박'은 커져만 갑니다. 앎에서 해방되기 위해선 '모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본래면목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국제포교사회(회장 정혜 스님)가 7월 20일 서울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24 명사초청 열린대법회' 법사로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사진〉 열린대법회는 국제포교사 제29기 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화두선과 국제전법'을 주제로 법문한 선업 스님은 출가 이야기와 명상 상담 경험, 숭산 스님 일화 등을 예로 들어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국제포교사의 역할에 주목했다.

선업 스님은 "해외 포교 지평을 넓힌 숭산 스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꼭



알아야 하고, 모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서양 사람들의 병통을 명확하게 파악했다. 그래서 '앎에서 해방되는 것'을 화두로 삼았다"며 "모름의 상태로 돌아가고 스스로가 모름을 인정하게 됐을 때 다시 궁금증이 생겨날 수 있고, 한 단계 나아가 질문다운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나'를 둘러싼 이름, 나이, 생김새 등의 언어적 규정이 결코 '본질'이 아니라는 점도 역설했다. 선업 스님은 "'견성(見性)'의 성립 조건은 보는 것에는 보이는 것이 있다는 데 있다. 대상과 그것을 보고 있는 대상이 각각 존재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보고 있는 대상이 보이는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규정에 의해 본질은 왜곡된다"며 "우리는 이 대상이 나타나기 이전, 즉 말보다 앞서가는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선업 스님은 "숭산 스님을 이을 걸출한 해외 포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반들과 함께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더프라미스 '재난 현장 아동 돌봄' 추진

LG유플러스 · 한국중앙봉사센터

7월 18일 출범…아동 공간 운영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가 LG유플러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 구호 현장에서 아동 친화 공간 '유플러스 키즈존(U+Kids Zone)'을 운영한다. 이들은 7월 18일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1층 시어라운지에서 '재난 현장 아동 돌봄 활동 출범식'을 가졌다.〈사진〉

더프라미스에 따르면 대형산불, 지진, 수해 등 재난 현장에서 아동은 성인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급증하는 요즘 '기후 약자'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해외 재난 현장에서 구호단체가 인명구조, 시설복구 활동과 함께 아동을 위한 놀이터와 학교를 운영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간 국내 재난 현장에는 아동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시설과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더프라미스는 2022년 동해안 산불 대피소에서 아동 놀이방, 2023년 강릉 산불 대피소에서 어르신 사랑방을 운영해왔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프라미스는 LG유플러스·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재난 구호 현장에 아동 친화 공간을 운영해 맞춤형 재난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더프라미스는 아동의 교육·놀이·돌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전국 자원봉사 조직을 통해 인력과 구호물품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키즈 특화 서비스 '아이들나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패드와 냉난방기, 아동 특화 키트 등을 제공한다. 아동 특화 키트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색칠 그림책, 색연필, 장난감, 전신 베개, 학용품 등으로 구성된다. 김내영 기자

"어르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

도선사, 7월 22일 '복달임 행사'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선사가 여름날 폭우와 폭염에 지친 어르신들 건강을 챙기기 위해 자비나눔에 나섰다.

삼각산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는 7월 22일 서울 강북구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승재) 1층 경로식당에서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삼각산 도선사와 함께하는 복달임' 행사를 진행했다.〈사진〉

도선사가 후원하고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150명, 지역 초대 어르신 250명 등 총 400명에게 따뜻한 한끼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였다. 식사는 육개장, 밑반찬, 개인별 식수, 수박과 떡 그리고 기념품(화장지·커피믹스)로 구성됐다.

식전 행사에는 사회복지법인 혜명 상임이사이자 도선사 총무국장인 원각 스님을 비롯해 이승재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김명희 강북구의회 의장, 유인애



강북구의회 부의장, 박철우 강북구 구의회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원각 스님과 내빈들은 직접 배식 봉사에 동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원각 스님은 "궂은 장마철에도 '도선사와 함께하는 복달임'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행사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요즘 장마철이라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날이 많다. 오늘 준비된 음식 많이 드시고 올해 여름 잘 나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보양식을 대접받은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김문자(80) 할머니는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행복했다. 도선사가 해마다 이런 행사를 열어줘서 감사해"라며 "내년에도 행사에 계속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수습기자

도파민 중독 치유엔 선명상 템플스테이 '강추'합니다!



대흥사에서 청년들이 스님의 지도 아래 명상을 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공**

'마음챙김 길잡이' 선명상 템플스테이

쇼폼 · 술 · 도박 등 심각한 중독사회
정신 고통에 '선명상' 필요성 떠올라

명상 접목한 템플스테이 개발 활발해
선명상 활성화 바람…심신 치유 '탁월'
문화사업단, 특화사찰 시범운영 전개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현대사회는 그야말로 중독사회다. 술, 마약, 게임, 도박, SNS뿐 아니라 일, 운동, 공부, 여행에도 중독된다. 최근에는 '숏폼 중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분 안팎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Short-Form)이 전 세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숏폼 중독'이 현대인들의 일상으로 파고들었다.

실제 모바일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 등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앱 1~5위 가운데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이 각각 1, 3, 5위를 차지했다. 모두 숏폼을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하지만 숏폼 콘텐츠를 과도하게 시청하면 고강도 자극에 익숙해지고, 뇌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도파민 중독' 현상이 나타난다. 대체로 알코올, 도박, 마약, 스마트폰 등의 중독도 도파민 중독과 관련이 깊다.

도파민 중독은 수면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자기효능감 저하, ADHD 등 심리적 문제를 유발한다. 청소년기 아이들에겐 인지 능력 및 문해력 발달을 저해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각종 중독으로 물들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이 늘고 있다.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선명상'이 새로운 치유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명상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한 번 하는 행위 가운데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을 방하착(放下着) 하는 것을 말한다. 누워서 하든 앉아서 하든 걸으면서 하든 정해진 방법은 없다. 그저 복잡한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과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다.

정신적 안정을 되찾는데 선명상은 탁월하다. 중독은 대개 불안, 스트레스, 우울 등 정서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선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불안·긴장 해소에 도움을 준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정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도 길러준다.

극한의 상황에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체득되면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에도 쉽게 빠지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전반이 향상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선명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선명상과 접목한 템플스테이도 각광받고 있다. 일상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선명상을 체험하며 재충전하는 소중한 '중독 디톡스' 시간. 여기에 보다 깊이 있는 명상으로 안내할 전문가 스님들의 지도는 덤이다.

전국 사찰에서는 특색있는 '선명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보급해 참여자들에게 맞춤형 치유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는 '선명상'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50개 프로그램(7월 25일 기준)이 소개된다.

눈길을 끄는 건 서울 도심 사찰의 당일형 프로그램이다. 바쁜 현대인들을 고려해 일상 속 짬을 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인다.

서울 길상사의 '도심 속 달빛 선명상'은 8월 6~29일 매주 화·목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진행한다. 이 시간에는 강사로 나선 아비섹(ABHISHEK KESHAV) 씨에게 요가를 배우며 힐링과 긍정 에너지를 얻는다. 아비섹 씨는 하타(HATA) 요가 수련 경력 30년의 인도 출신 요가 전문가다.



법륜사 선명상.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공**



네 가족이 직지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공**

서울 국제선센터가 운영하는 '스님과의 차담&선명상'도 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이어지는 짧은 일정이지만, 나를 되돌아보긴 충분하다. 스님과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하며 일상의 고요함도 찾아간다.

선명상 집중수행 과정도 준비돼 있다. 명상 시간과 강도를 늘려 내면의 깨달음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다. 성남 대광사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 '정준영 교수와 함께하는 선명상 집중수행 과정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좌선과 행선을 반복하며 '참나'를 탐구한다.

용인 법륜사에서도 8월 2일부터 2박 3일 동안 집중 명상이 이어진다. 절명상, 걷기명상, 붓다볼 명상, 자비명상, MBSR 명상, 차명상 등 다양한 명상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오로지 '힐링'에 초점을 맞춘 템플스테이도 만나볼 수 있다. 강원 삼화사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진행하는 '무릉계곡 템플스테이(2박 3일)'다. 한여름 백두대간 무릉계곡에서 펼치는 트레킹 명상과 동해 해돋이 명상은 우리 삶을 행복으로 이끈다. 전남 용흥사의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에서도 생각을 줄이는 정화 명상을 통해 불편, 불안, 슬픔,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시간을 갖는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선명상 프로그램도 주목된다. 서울 진관사는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로,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 용기백배', 중·고등학생을 위한 '부처가 되, 준비갈 완료'를 각각 진행한다. 뜨거운 여름철 더위를 식힐 물놀이는 물론 발우공양, 스님과의 차담, 사찰 기본 예절 배우기 등을 통해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체험한다.

이 외에도 서울 화계사 '일상생활 속의 마음챙김', 대구 동화사의 '일심아(一心我) 선명상', 청주 용화사의 '차와 함께하는 선명상', 해남 대흥사의 '선선선', 광주 무각사 '나의 진짜 보석을 찾는 여행', 김천 직지사 '내 마음 깊이 살펴보기 선-명상', 인천 연등국제선원 '마음의 문고리를 잡다' 등 가지각색 프로그램이 대중을 기다리고 있다.

향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선명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앞장서고, 적극 지원해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화사찰 시범운영' 사업이 바로 그 시작점이다.

선명상 템플스테이 시범운영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다. 시범운영 사찰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 '선명상' 단어를 포함해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활동사진, 참가자 후기, 만족도 조사 등의 결과도 취합해 보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사업단은 내년 초 시범운영 사찰의 프로그램 운영 횟수, 참가자 실적, 참가자 만족도, 교육 참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특화사찰'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선명상 템플스테이 특화사찰 시범운영을 통해 참가자들이 깊이 있는 선명상을 배울 수 있도록 단계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사업단은 선명상 템플스테이 대중화로 한국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고,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 여름, 아직까지 휴가 피서지를 정하지 못했다면 선명상 템플스테이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스트레스가 넘쳐나는 각박한 세상에서 선명상에 몰입하는 시간은 각자 마음에 평화를 체득하고 상생의 가르침을 배우는 배움의 장이 될 것이다.



“보살계, 대승불교 수승한 수행법”

보살계연구회, 첫 학술대회
7월 21일 해인사 일원서 개최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 법문
계율 전공 학자들 발표 이어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보살계연구회가 7월 21일 해인사 템플스테이 세미나실에서 ‘보살의 이상과 현실-인도에서 한국까지’를 주제로 첫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롭게 결성된 보살계연구회(회장 이상엽)가 7월 21일 해인사 템플스테이 세미나실에서 ‘보살의 이상과 현실-인도에서 한국까지’를 주제로 첫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해인사 승가대학과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경남대 교양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의 기조법문으로 시작해 2부 인도·중국불교의 보살계, 3부 한국불교의 보살계 이해, 4부 보살계 연구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학술대회 첫 발표를 시작한 지묘 스님(일본 하나조노대)은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의 선(善)의 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지묘 스님은 “〈보살지〉에서는 보살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기 위해 종성의 유무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지경〉은 동일한 내용으로 말하지만, 〈선계경〉에서는 초발심의 유무를 가장 중요시하며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발심의 내용과 성숙시켜야 할 대상을 통해 무종성 내지는 무성품의 유정까지도 포용하며 이타의 대상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없음을 알았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이상민 연구원(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은 ‘금제(禁制)를 수행하기 〈보살지〉에 나타난 지계바라밀(持戒波羅蜜)의 특징’을 주제로 발표하며 “계율은 고정된 내용과 형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구제라는 이타적 의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는 보살은 소승계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 이는 〈반야경〉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설해지는 일체법의 무자성(無自性), 공(空)이라는 교의에서 보았을 때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금강 스님(해인사 율학승가대학원)은 ‘성소수자에 있어서 출가와 수계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불교의 입장에 대해 논자는 출가는 허용할 수 없지만, 재가 신자로서 신행 활동에 대해서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붓다는 율 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십구의(十句義)’”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살계 연구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주제로 열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와 봉녕사 율주 적연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보일 스님, 학감 법장 스님을 비롯해 해인사 승가대학 교수사 스님 및 학인 스님들과 이상엽 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기조법문에서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는 “참선 공부를 중요시했던 당시는 계율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보살계는 대승불교의 수행방법이며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보살계연구회는 대승 사상이 발족할 때부터 존재했어야 한다. 이번 연구회 연구자들이 젊어 더 희망적이란 생각이 든다. 앞으로 계를 연구하고 지키는 표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명경문화재단·日조동종, 문화교류 MOU

7월 23일, 쿠무다 콘서트홀서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이사장 주석 스님)과 일본 조동종(의장 다나카 세이겐 스님)이 문화교류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사진〉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은 7월 23일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일본 조동종 친선 방한단-명경문화재단 MOU 협약식 및 추모음악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명경문화재단과 일본 조동종은 양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종교 교류를 확대하며 유기적 협력을 통한 우호 증진에 앞장선다.

행사에는 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과 이사진을 비롯해 일본 조동종 의장 다나카 세이겐 스님, 의장단 스님들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일본 조동종이 봉행하는 위령재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겼다. 일본 조동종 의장 다나카 세이겐 스님은 약왕사에서 40년 동안 한국 강제 징용 희생자를 위한 위령재를 지내고 있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세이겐 스님께서 봉행한 위령재는 큰 의미를 가진다.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협약식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부산 정각원, 지역 어르신 만발공양

7월 24일 영양식 800인분



사단법인 부산 정각원(이사장 향공 스님)이 장마와 폭염으로 지친 지역 어르신에게 영양식을 대접하며 건강을 기원했다.〈사진〉

(사)부산 정각원은 7월 24일 모라동 고동바위공원에서 ‘이웃과 함께 소통하며 정(情) 나누기 영양식 만발공양’을 진행했다.

이번 만발공양을 위해 견강암 신도들과 사단법인 부산 정각원 회원은 직접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 800인분을 마련했다. 삼복더위와 장마철 습한 날씨에도 향공 스님과 정각원 봉사자들은 봉사를 쉬지 않았고, 어르신들은 영양식으로 더욱 건강해졌다며 감사인사를 연신 전했다.

이사장 향공 스님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무더위를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연등회, 소원등 후원금 대학동아리 ‘어썸’ 지원

7월 18일 기금 1000만원 전달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가 7월 18일 부산대 학생회관 앞에서 ‘2568부산연등회 소원등 모금 회향식’을 개최했다.

부산연등회에서 시민들이 소원등을 달며 십시일반 전달한 후원금 1000만원을 취약계층 집수리 대학생 봉사단체 ‘어썸’에 지원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는 7월 18일 부산대 학생회관 앞에서 ‘2568부산연등회 소원등 모금 회향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 사무총장 석산 스님 및 부산불교연합회 집행부 스님과 연합회 직원, 동아리 ‘어썸’ 회원들이 참석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은 “젊은 대학생들이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를 한다는게 너무나 뜻깊고 아름답다”며 “이번 성금은 부산연등회에서 시민들이 소원등을 달며 후원한 금액을 모아 전달하는 것이다. 부산시민의 정성이 어썸의 멋진 자비나눔에 잘 회향되기를 기대하고 바란다”고 격려했다.

서보국 어썸 회장도 “저희 어썸 동아리는 이번 해 10년차를 맞은 대학생 봉사단체이다”며 “그동안 활동하면서 물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1년 동안 넉넉하게 나눔을 할 수 있는 물품을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수많은 부산시민들의 나눔과 정성에 다시 한번 더 감사하며 좋은 환경을 선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자비나눔 후원단체로 선정된 ‘어썸’은 2014년 창립된 부산연합 집수리봉사 대학생 동아리이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으며 부산지역 391가구(6월 30일 기준)에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했다. 회원 수는 현재 130명이며 부산대를 비롯해 부경대, 동아대, 경성대, 동의대, 신라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과학기술대 등 부산지역 대학교 소속 학생들과 졸업생 동문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부산연등회에서 1000원의 보시금을 받는 소원등 달기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행사 후 부산불교연합회는 소원등 보시금 전액을 부산시민을 위한 자비나눔으로 회향했으며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재래시장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며 본격화됐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4년째 매년 나눔 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꼭 필요한 보시품을 선정해 전달하기를 지속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나눔실천 부산, 생명존중 강좌

7월 23일 영광도서 문화홀서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가 7월 23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8층 문화홀에서 ‘숭고한 마음 생명존중-장기기증’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좌를 개최했다.〈사진〉

강사 박동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장기기증희망등록 필요성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 안내했으며, 복춘희 사단법인 생명잇기 사무총장은 ‘기증의 실제 과정 및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에 이어 수료증 전달 및 본부장 인사말이 진행됐다.

본부장 심산 스님은 “불자 및 대학생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활성화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편함과 아픔의 고통!
마이크로파로 통증 염증을 치유하세요~

극초단파
ARA-880 P

3분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내 주치의 의료기가 내곁에~

불면증, 관절염, 목, 어깨, 허리, 무릎, 좌골신경통, 치질, 무좀, 습진, 하지정맥, 비염, 천식, 변비, 설사, 비만, 위염,기관지, 위경련, 족저근막염, 당뇨, 중풍, 고혈압, 신종플루, 등 통증완화

▶고출력 극초단파 (250W)로 열감과 지속성이 뛰어남
▶치료 부위에 따라 자유롭게 각도 조절이 가능
▶쉽고 편리하게 설계되어 사용하기가 편리
▶제품의 경량화(30KG)로 이동하기 용이

상담문의 부성

T 010.3730.9413

염불전문 특수마이크 !
최신 디지털 유무선 염불전문 마이크 탄생!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현장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항상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부처님 법 전해요’ 젊은 부처들 문화 한마당

봉선사, 7월 19일 광동고서 첫 ‘연꽃청소년음악제’ 봉행

광동중고, 영석고 등 9개팀 경연 학생 500여 명 참석해 열띤 환호

27일, 봉선사 연지서 ‘음악회’도

남양주=노덕현 기자


제1회 연꽃청소년음악제에 나선 종립학교 학생들이 신명나는 공연을 펼치고 있다.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남양주 광동고 운악관을 가득 메운 청소년들이 한목소리로 상월결사 정신을 상징하는 구호를 외쳤다. 청소년들이 저마다 준비한 춤과 노래로 젊음의 열정과 불자로서의 연대를 나누는 자리가 7월 19일 남양주 광동고등학교에서 펼쳐졌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 상월결사 이사장)는 7월 19일 남양주 광동중·고 운악관에서 ‘제1회 연꽃청소년음악제’를 개최했다.

첫회를 맞는 이날 행사는 청소년 전법을 위한 상월결사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대 연꽃이 되소서, 제가 진흙이 되겠나이다’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날 행사에는 상월결사 순례단이었던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함께했다. 원로의원 동명 스님, 교육원장 범해 스님,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선업 스님, 총무부장 성화 스님, 종책모임 화엄1회장 심우 스님, 화엄2회장 선광 스님, 화엄3회장 삼조 스님, 종회총무분과위원장 오심 스님 등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봉선사 본말사 스님들도 대거 참석해 이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음악제는 짧은 불교의식과 함께 곧바로 종립학교 학생들의 경연으로 들어갔다. 남양주 광동중 ‘나의 멜로디’ ‘레디언트’, 광동고 ‘리버브’, 의정부 광동고 ‘스트라이트’ ‘김도명’, 영석고 ‘파라미타’, 남양주고 ‘디퍼런트’, 남양주연합댄스팀 ‘엘로’ 등 각자 준비한 춤과 노래를 선보였다. 또 김포대 댄스팀, 퓨전걸그룹 ‘파스텔걸스’도 신명나는 무대를 만들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청년불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다. 방학이 시작된 오늘 함께 춤추고 즐겁게 보내자”며 “봉선사 연꽃 연화장 세계를 광동고 운학관으로 옮겼다. 오늘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스님들도 힘을 내 전법에 나서자”고 말했다.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축사에서 “우리 불교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음악을 통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소년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지금 이 곳이 세상의 중심이고, 여기 있는 청소년 여러분이 이 곳의 중심”이라며 “부처님 법 전하자”고 외쳤다.

음악제에서는 경연이 거듭될수록 열기를 더해갔고, 스님들이 응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자리를 내주자 콘서트장처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연출했다.

한편, 봉선사는 7월 27일 오후 7시 경내 연지 상설무대에서 ‘연꽃축제 음악회’를 열었다. 음악회에는 연꽃청소년음악제 수상팀 및 상월청년합창단, 상월비보이 이에이트 쿠루 등 상월청년들의 음악 공연과 가수 우순실, 방정식, 장사익, 최예림 씨의 무대가 펼쳐졌다.

조계종복지재단, 익산 지역에 긴급구호물품 지원

7월 22일 지원본부에 물품 전달

덕운 스님 등 복구 작업에 동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7월 22일 익산 수해지역을 방문해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피해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재단)이 사상 유례없는 극심한 수해를 입은 전북 익산시를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피해주민들을 위로했다.

재단 사무처장 덕운스님과 직원들과 함께 7월 22일 오후 익산시 나바위성당에 설치된 지원본부를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도너츠 2000개, 과일음료 3000캔, 프로틴음료 4000개, 요거트 4000개 등 총 3000만원 상당이다.

심보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덕운 스님은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큰 지원은 아니지만 구호물품이 곳곳에 쓰여 시민들께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사무처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김진희 씨 집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으며, 토사유입으로 막힌 농지 배수로 확보작업과 무너진 둑 복구작업에 동참했다.

물품을 전달받은 김진희 씨는 “지난 폭우로 집 담장이 무너지고 논둑이 무너져 토사가 유입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재단은 지난 19일 재난판정위원회를 개최해 수해지역 구호를 결의했으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원불교봉공회 등과 연계하여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취담당 일현 대종사 33주기 추모다례재

7월 21일 마곡사 관음전서

교구 노스님 · 학인스님에

생활지원금 · 장학금 전달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는 7월 21일 경내 관음전에서 근대 불교 의례 거장인 취담당 일현 대종사 33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마곡사 원로 성연 대종사, 주지 원경 스님, 총무국장 원묵 스님, 사회국장 도계 스님, 재무국장 법등 스님, 봉서사 주지 자암 스님, 봉곡사 주지 서웅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과 본·말사 대중 스님, 선원 정진 스님이 동참해 유훈을 기렸다.

다례재는 범종 5타를 시작으로 헌향과 헌다, 원묵 스님과 도계 스님의 종사영반, 일현 대종사의 행장소개와 육성염불 시청, 원경 스님 봉행사와 자암 스님 추모사, 장학금 전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원경 스님은 “평생 교육사업에 투신하시고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한 스님의 삶을 다시 한번 반조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다례일에 정진 중인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교구 노스님 15명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또한 학인 스님들에게는 매달 학비 보조금을 함께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암 스님은 추모사에서 “스님 목소리는 철저한 수행에서 나오는 진정한 염불삼매의 소리며 후학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다시 한번 일현 대종사를 추모하며 수행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동국대, 일본 화원대, 동학사 승가대학, 동학사 승가대학원, 중앙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교대학원, 운문사 승가대학, 능인대학원에서 수학 정진 중인 12명의 스님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선운사, 윤명 선사 41주기 추모다례재

갑진년 하안거 포살법회도 함께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선운사의 교구본사 승격을 이끌고 초대 주지를 역임한 남곡당 윤명 선사 41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7월 22일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추모다례재는 남곡당 윤명 선사 영전을 향한 사부대중의 삼배에 이어 행장소개, 문도대표 재곤 스님의 헌향과 헌다, 종사영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 헌향과 헌다, 추모 입정, 공지사항, 회향삼배의 순으로 진행됐다.

남곡 문도를 대표해 재곤 스님은 인사말에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은사스님의 추모다례재에 잊지 않고 참석해주신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후학들은 은사스님의 유지를 이어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곡당 윤명 스님은 1931년 장성 백양사에서 영호 스님은 은사로 만암 스님을 계사로 득도 후1934년 만암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3년 불교정화운동으로 격렬했던 비구대처 양설을 화합하는데 주력하고 총무원 재무부장, 교무부장, 조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966년 초대 24교구 선운사 주지 소임을 맡아 선운사 천왕문과 대웅보전, 도솔암을 중창하고 1983년 세수 73세, 법납 54세로 선운사에서 입적했다.

오후에는 불기 2568년 조계종 24교구 선운사 갑진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 강주 혜수 스님이 포살법사를 맡아 진행된 이날 포살법회의 참가 대중은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독송하며 계율을 준수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을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서 만난 꿈같은 여름밤 ‘화야몽’

7월 20일 보제루서 1차 행사

‘MZ세대’ 연성 스님과 차담

8월 24일까지 세 차례 진행



뜨거운 여름, 산사에서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는 화엄사 화야몽(華夜夢) 행사가 열렸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7월 20일 경내 보제루에서 2024년 제1차 화야몽을 개최하고, 연성 스님(광주 빛고을포교원 주지)을 초청해 ‘나 그리고 가족’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화엄사 야간 개방과 함께 열린 프로그램으로, 화엄사 ‘MZ세대 스님’으로 유명한 연성 스님과의 차담, 소원지 작성, 야간 화엄사 탐방 등 다양한 활동들로 진행됐다.

차담에는 사전 신청한 젊은 가족들과 경북대 불교동아리 회원 20명이 참가해, 연성 스님에게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님들 생활, 불교의 의미 등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고, 스님은 자신의 출가 이야기를 통해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연성 스님은 “불교의 시작은 지금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며 “내 안에 욕심, 화, 어리석음이 있어 마음이 가라앉거나 들떠 있으면 고통이 일어난다. 이를 모두 제거한 상태가 행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엄사 화야몽은 2차 부부와 연인 초청(7월 27일, 범문 스님), 3차 자유신청(8월 10일, 범정 스님), 4차 부모님과 함께(8월 24일, 연우 스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양 불암사에 특별한 박물관 문 열다

7월 20일 전시관 개관법회



사단법인 불암사(이사장 신명옥)는 7월 20일 경내에 조성한 ‘불암사 유물전시관’ 개관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관한 유물전시관은 기존 방으로 사용되던 공간 130여 평을 리모델링해 전시 공간으로 마련하고,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작품 100여 점을 상설로 전시한다.

개관식에는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해전 스님,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등 스님, 고성 폭포암 현각 스님, 수황사 벽암 스님을 비롯해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박우육 전남도청 문화융성국장 등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신명옥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조상들의 정신문화와 미래를 연결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유물전시관을 개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전통을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광양시 문화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전 스님은 축사를 통해 “한민족 정신문화의 원형은 불교에 있다. 지금의 혼돈시대를 불교의 전통가치관을 통해 올바르게 바꿔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문화硏 ‘2024 전주 연꽃문화축제’ 개최

7월 20~21일 전주 덕진공원서



전북 전주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만개한 연꽃을 즐기는 2024 전주 연꽃문화축제가 열렸다.

(사)우리문화연구원(이사장 화평 스님·금산사 주지)는 7월 20일과 21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2024 전주 연꽃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축제 개회식에는 이사장 화평 스님, 금산사 부주지 덕림 스님, 포교국장 효진 스님, 전북불교회관 제환 스님, 귀신사 주지 무여 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보림사 회주 종범 스님 등을 비롯해 국주영은 전 전북도의장 등 전주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에 앞선 인사말에서 우리문화연구원 이사장 화평 스님은 “아침에 폭우가 쏟아져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폭우 속에서 연꽃축제를 준비한 스태프들에게 감사하다”며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 전주 시민들은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길 빌며 연꽃축제를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불교대학, 서거석 교육감 공감 토크

7월 21일 교내 큰법당서



사단법인 부처님세상(이사장 백준기)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7월 21일 교내 큰법당에서 ‘전북교육의 방향’이란 주제로 여름방학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AI, 챗지피티(chatGPT) 등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 바른 인성 교육, 예체능 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뤄졌다.

이창구 전북불교대학장은 인사말에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전북교육의 책임자인 서거석 교육감의 철학과 교육 방향을 듣고 질문하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은 “기초학력을 넘어 학력 신장을 이루고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지역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교육 방향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日, 불교 미술에 매료되다

'나라국립박물관 특별전' 성황
열흘 만에 1만 관람객 이어져
2~4세기 조성된 보살입상 등
205건 불교미술품 전시 눈길

박영빈 객원기자


특별전을 관람 중인 일본인들 . 사진출처=홋코쿠 신문

지난 7월 6일부터 일본 이시카와 현립미술관에서 개최 중인 특별전 '나라박물관의 모든 것: 나라국립박물관 지고의 불교미술 컬렉션'이 현지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을 이루고 있어 화제다. 7월 17일엔 1만명째의 관람객을 맞이하는 등 불교미술에 대한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월 20일, 일본 '홋코쿠 신문', '미도리구 뉴스' 등의 현지 언론들은 특별전 소식을 집중 보도했다.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 소재한 나라국립박물관은 1895년 개관했다. 특히 나라를 중심으로 한 고찰과 신사들에 봉안된 불교미술품들을 보관, 전시하며 연구하고 있다. 1400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 불교미술과 더불어 동아시아 불교미술에 대한 국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국립박물관은 매년 특별전 등을 통해 불교미술의 매력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다.

2021년 개최된 특별전 '나라박물관 삼매: 지고의 불교미술 컬렉션'은 지금도 일본 문화계에서 여전히 뛰어난 불교미술전이었다고 회자되고 있다.

이번 이시카와현 현립미술관에서 개최된 전시는 2021년도의 전시회에 출품된 불교미술품들 가운데 정수로 꼽히는 작품들과 더불어, 이시카와현과 그 문화권에 전파된 불교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유물들이 전시됐다. 국보 8건, 중요문화재 93건을 포함해 205건의 넘는 불교미술품들이 전시되면서 특별전의 이름도 '나라박물관의 모든 것'으로 정해졌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오래된 전시품은 2~4세기 쿠샨왕조 시대에 조성된 불전도부조와 보살입상. 이 외에도 8세기경에 조성된 불상과 불화 등 나라박물관에서도 공개가 드문 작품들이 대거 포함돼 주목을 끌고 있다.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개최와 함께 큰 성황을 이루고 있다. 60대의 한 관람객은 "평소에도 나라박물관의 불교미술품들을 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 미술품들 가운데서도 명품만이 엄선되어 온다는 말을 듣고 놓쳐선 안 될 전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연수차 단체로 관람을 왔다는 한 관람객은 "아름다운 불상들을 사방에서 가까이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다. 혼자서 다시 한 번 방문할 것"이라며 감동을 표현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전기 전시의 마지막 날인 7월 28일이 되기도 전에 지난 17일 특별전은 1만명째 관람객을 맞이했다. 1만번째 관람객은 카나자와시에서 온 오카와씨 부부로 사례품으로 도록과 특별전 기념상품 등이 선물됐다.

현립미술관 측은 "곧 시작되는 각 학교의 여름방학에 앞서 주말개관은 물론 야간관람과 조조개관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후기 전시는 오는 8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인도, 불교 유적 숙박시설 전면 개보수

관광부 "숙박시설 개선 통해 관광객 유치"


인도 관광부가 불교 유적 숙발시설 전면 개보수로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사진출처=타임즈 오브 인디아

인도 오리사 주(Orissa State) 자주르 지구에 위치한 불교 유적인 랏나기리(Ratnagiri), 우다야기리(Udayagiri), 그리고 랑구디(Langudi) 등 3곳의 숙박 시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면 개보수될 예정이다.

타임즈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는 7월 21일 "관광부가 랏나기리, 우다야기리, 랑구디의 숙박 시설이 파손된 채로 오랫동안 방치돼 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광부는 랏나기리 유닛 개보수에 약 4.57 크로르(한화 약 9억 1000만원), 우다야기리 게스트하우스에 약 1.75 크로르(약 3억 5000만원), 랑구디 게스트하우스에 약 2.62 크로르(약 5억 2000만원)를 포함해 총 18억여 원을 할당할 예정이다.

개보수가 완료되면 입찰을 통해 숙박 시설을 임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도로, 급수 시설, 안전 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세 유적의 아름다움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구해 현지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관광부 관계자는 "목표는 올해 안에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교 유적지의 관광 수요를 고취시키고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통해 현지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 개선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랏나기리, 우다야기리 및 랑구디는 고대 인도의 중요한 불교 유적이다. 고대에 불교가 번성해 다양한 유물과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다. 특히 불교 수도원들이 대거 위치해 성지로 여겨진다.

박정현 객원기자

印 불교단체, 고대불교 유적지 재조사·보존 촉구

20년째 방치된 5세기경 사원유적
"후손 위해 보존은 사회적 책임"


재발굴이 논의 되고 있는 사원유적 전경. 사진출처=데칸 헤럴드

남인도 벵갈루루 인근에서 20여 년 전에 발굴된 불교유적지에 대해 벵갈루루에 있는 불교 단체가 해당 유적지의 발굴을 재개할 것을 주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마하보디협회(MBS)는 "고대 남인도 불교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유적지가 20년째 방치 되고 있다"며 정부와 대중의 관심을 촉구했다. 지난 7월 21일 인도의 '데칸 해럴드'는 해당 유적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 보도했다.

남인도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에서 약 50km 떨어진 도다발라푸르 지구에 위치한 이 유적지는 2000년부터 4년간 두차례에 걸쳐 소규모 발굴작업이 진행됐다. 서기 4~5세기경에 세워진 도시유적으로 밝혀진 이 유적은 특히 거대한 불교사원 유적이 발견되어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당시 발굴조사를 이끌었던 전 마이소르 대학 고고학 교수인 묵카이 S. 크리슈나무르티 교수는 "최초 발굴작업에서 거대한 사원 유적이 발견됐다. 유적에선 불탑을 중심으로 한 법당, 요사채가 부속된 승원, 흙벽돌로 조성된 봉헌탑 등 초기 대승불교에 중요한 증거자료들이 대거 발굴됐다"며 유적과 발굴유물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묵카이 교수는 "현재 발굴유물들은 마이소르 대학 박물관에 보관 중이며, 당시 순수하게 대학의 연구자금 지원으로 진행되어 체계적인 전체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다시 매립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MBS는 2000~2004년 발굴조사 보고서와 출토 유물들을 바탕으로 유적지에 대한 추가 발굴을 추진하고, 나아가 유적지를 사적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벵갈루루 MBS 사무총장인 아난다 스님은 후손들을 위해 이 장소를 보존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발견된 유적이 적절하게 보존되지 않았으며, 유적지의 나머지 부분은 파괴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MBS 측은 주 정부와 인도 고고학 조사국(ASI)에 필요한 조치와 전체적인 재발굴 조사를 촉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와 관련기관에 공식 서신을 보냈다.

지난달 개최된 세미나에서 묵카이 교수는 "유적지의 토양이 매우 비옥하기 때문에 현재 유적지가 있는 땅의 대부분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고, 큰 도로들이 복잡하게 놓여있다. 이러한 환경은 유적과 유물에 매우 위험하다"고 발표했다.

MBS 측의 요청과 주장에 대해 현재 카르나타카 주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다. 특히 ASI 고고학 국장인 알록 트리파티 박사는 "추가 발굴을 고려하기 전에 현장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준비하려 한다"며 예비단계에 착수할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한국 이주 태국불자 위한 대법당 건립

천안 왓풋타람 사원
7월 21일 기공법회 봉행



천안 목천에 위치한 태국불교 사원 왓풋타람이 고국을 떠난 지역 태국 이주민과 남방국가 불자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될 대법당 건립을 추진한다.

천안 왓풋타람(주지 프라 찌라삭 스님) 사원은 7월 21일 경내에 대법당을 건립하는 법회 및 기공식을 개최했다.〈사진〉

2023년 1월 문을 연 왓풋타람 사원은 지역 태국 이주민 불자들에게 신행공간을 제공하고자 세워졌다. 왓풋타람 사원은 지역 내 사정이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선행을 이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2층짜리 현대식 건물과 컨테이너 하나로 구성된 사원은 정식 법당이 없어 현대식 건물 1층을 임시 법당으로 사용해 왔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되는 대법당은 현대식 태국법당으로 이주민들에게 맞는 불교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을 증명하기 위해 프라 찌라삭 스님, 프라 팟차라 스님(태국 방콕 왓사켓 사찰), 프라 끼엣띠넌 스님(태국 팟타룽), 프라 탄와 스님(태국 치앙마이)이 참여했다. 한국 거주 태국인 400여 명도 동참해 무사히 법당이 건립되기를 기원했다. 이들은 태국불교 의례에 따라 빨리어 법회를 봉행하고 동참자 전원이 건물의 주춧돌을 다듬는 의식을 진행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백중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승복, 가방 50%/가구, 병풍 30% 할인
'매장 방문시 추가 할인 됩니다'
'특별한 할인가격, 더더 할인가격'
백중 용품 미리 준비하세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달력도 7월 10일부터 주문받습니다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2024년 동호불교 백중 물품 행사 품목
※ 택배비 포함, 부가세 별도 가격입니다.
2024년 7월 30일 물품 소진시 마감 예정

조상옷
쟈가드	100벌 이상	250,000원
천연펄프	100벌 이상	250,000원
추가옵션		
버선		300원
양말		300원
세면도구	100개 이상	150,000원
메리야스	100개 이상	160,000원
베네저고리	100개 이상	150,000원
종이짚신	150개 1BOX	195,000원
종이신발	50족 1BOX	60,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55,000원
돈타래	40개	65,000원
원백	20개	65,000원
홈초원백	20개	70,000원

식물성 양초 국산 최고급
7일초	20개	95,000원
5일초	24개	100,000원
3일초	40개	100,00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홈초대 8일초	20개(한박스)	85,000원

파라핀	1.8리터 12병(한박스)	55,000원
지옷	200개(한박스)	140,000원
수자	100개	60,000원
동자동녀	100개	70,000원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칠보 개금 할인해드립니다.(기존 불상 가능)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 (소불7치 500불이상 1불당 12000원)
대표번호 054-762-8200 / 문의전화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새마을금고 9003-2562-87257 (임건순)
■ 오시는 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마하무용단이 9월 21일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열릴 공연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무더위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2018년 6월 생명나눔실천본부 일면 스님과 함께한 창단식에서.



자비나눔 무대가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사진은 연화원 20주년 행사 모습.

"쉽고 재미있고 의미있는 춤, 케네디 센터서 선보일게요"

30 생명 나누다, 자비의 길 걷다⑧

마하무용단 연습 현장

남양주=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면 남양주 불암사 경내가 흥겨운 음악소리로 가득 찬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 산하기관인 마하무용단의 연습이 시작됐다는 신호다.

무더위를 뚫고 불암산을 찾은 7월 24일 오후, 그날도 어김없이 극락전에서 우렁찬 북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북소리에 이끌려 발길을 멈춘 참배객들은 하나같이 "고요하기만 할 것 같은 사찰이 더욱 활발발(活潑潑)한 공간이 된것 같아 생기가 도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현숙 단장이 진두지휘하는 마하무용단은 2018년 6월 정식 창단했다. 봉사의 삶으로 나눔을 행하는 평범한 주부들로 구성된 마하무용단은 개개인의 색깔이 뚜렷한 40대부터 60대 초반 연령대 23명이 단원으로 있다. 마하무용단의 이름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이 지어줬다. '마하'는 산스크리트어로 크고 위대함 등을 뜻한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며 고귀한 나눔을 행함에 있어 큰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사랑하라는 뜻이 담겼다. 큰 의미가 담긴 이름에 걸맞게 마하무용단은 일면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전통무용과 함께 나눔과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마하무용단은 흥겨운 음악과 춤을 통해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위안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생명나눔 희망걷기대회,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재, 환자치료비 모금을 위한 산사음악회와 같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연례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복지관과 요양병원, 군부대, 각종 사찰행사에서 연락이 오면 어김없이 수락한다. 젊은 층에게는 전통무용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고 어르신들에게는 익숙한 우리 것을 선보인다는 것에서 자부심이 크다.

엄마이자 아내, 딸, 며느리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년 여성들이 새로운 분야에 열정 하나로 뭉쳤기에 더욱 그렇다. 건강한 자기계발과 재능기부의 기본은 자비와 나눔이다. 불자로서, 불교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였고 열정을 갖고 귀한 땀을 흘리며 만들어는 단체이기에 더욱 고귀하다.

마하무용단원 중 11명은 9월 19~30일, 미국으로 떠난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다.

첫 무대는 9월 21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케네디 센터(Kennedy Center)에서 시작된다. '2024 Fantasy of Korea'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 마하무용단은 한국의 궁중무용인 '향발무'와 민속무용 '한량무' 등 다양한 한국전통춤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이튿날 메릴랜드 한인 시민협회가 주도한 무대에 이어 뉴욕으로 넘어간다. 9월 25일 타임스퀘어에서 버스킹 공연이 준비됐고 27일에는 뉴욕한인타운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네 차례 무대에서 마하무용단은 '향발무' '한량무' '태평을 춤추리라' '엄마아리랑' '흥이로구나' 등 일곱가지 무용을 선보인다.



9월 21일 미국 케네디 센터서에서 진행될 공연 '2024 Fantasy of Korea' 포스터.

마하무용단의 이번 미국공연은 세 번째 해외공연이다. 2018년 11월 28일~12월 6일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 루카시에서 열린 '아리랑 페스티벌'에 동참한데 이어 2022년에는 미국 뉴저지 백림사에서 열린 개산대재에 참여했다. 당시 현지에서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전통무용을 펼친다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됐다. 한국전통문화 외교사절단으로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세계에 선보인다는 것에서 자부심이 큰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번 미국공연을 앞두고, 11명의 단원들은 설레임을 감추지 못했다.

김은숙 부단장(52)는 "올해 공연을 보고 내년에도 섭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연습 또 연습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고, 김도희 수석(59)은 "춤을 추다 보니 케네디 센터에까지 진출하게 됐다. 걱정도 많지만 연습한 만큼 최선을 다해 국위선양하고 오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미경 씨(53)도 "큰 무대이다 보니 기대도 되지만 두려움이 크다"면서 "전공자도 아니고 늦게 무용을 배워 하는 만큼,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긴장하면서 매일 연습에 매진한다"고 말했다.

정현숙 단장은 "마하무용단은 쉽고 재미있고 의미있는 무용 공연을 추구한다"면서 "처음 무용단이 창립됐을 때 가진 포부인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대중과 소통하며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 문화외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생명나눔 30주년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의료 취약국에 자비의 의료물품을 보냅시다"

2024년 30돌을 함께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의료 취약국에 의료물품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세계에 전합니다. 공동 캠페인에서 모연된 후원금은 의료물품 배송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부처님의 세계일화 가르침 실천에 함께해 주세요.

- 후원계좌 : 농협 053-01-271485
- 홈페이지 : www.lisa.or.kr
- 후원문의 : 02-734-8050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30th Anniversary 1994-2024

2024년은 생명나눔실천본부 30주년의 해

30주년 기념식

2024. 10. 12.(토) 오후 2시
동국대학교 중강당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30년사 광고 모집

본부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생명나눔 운동의 30년 역사를 담은 30년사를 발간합니다.
생명나눔으로 걸어온 행복여정 30년, 미래의 30년도 희망찬 행복과 감동이 묻어나는 나눔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순번	광고 사이즈	광고료
1	A4	2,000,000원
2	A4 절반	1,000,000원

접수기간 7월 31일 까지

광고료 접수 계좌 농협은행 301-0009-6876-31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광고 접수 문의 : 02-734-8051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4~7/3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인생수업(잘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법륜/유근택 그림	휴
2	사바를무대삼아멋있게살아라:경봉스님의생활도담	경봉스님/김현준 엮음	효림	7	봉암사동안거일기	산강 대혜 스님	불교신문사
3	밀린다팡하(빠알리대장경/쿳다까니까야)	퇴현 전재성 역주	한국빨알리성전협회	8	진심직설:참 마음이란 무엇인고?	보조지눌/원순	법공양
4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9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5	불교초보탈출100문100답	김성철 지음	불광출판사	10	아비담마길라잡이(2)아비담맛타상가하	아누룻다/대림,각묵	초기불전연구원

책세상

삶 바꾸려면 자신 바꾸고 내면 치유해야



내면 치유
융 푸에블로 / 권혜림 옮김
불광출판사 / 2만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2011년 여름, 도피와 쾌락을 좇아 맹목적으로 몰두하던 또 한 번의 밤이 지나고터져 버릴 듯 쿵쾅대는 심장을 움켜쥔 채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겨우 스물세 살의 나이였지만 심장마비가 왔음을 직감했다. 죽음이 두려웠고,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를 방치했다는 게 창피했다."

책 〈내면 치유〉의 저자 융 푸에블로는 그렇게 살았다. 현실에 대한 불만족과 불안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 끝은 약물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하지만 그는 다행히도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달라졌다. 삶을 좀먹는 해로운 습관을 벗어던지고,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자기 삶을 돌보기 시작했다.

책은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한 사람이 다시금 희망을 되찾고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에서 발견한 깨달음이 담겨 있다. 삶을 바꾸려면 자신을 바꿔야 하고, 자신을 바꾸려면 내면에 쌓인 과거의 잔해를 덜어냄으로써 먼저 자신을 치유해야 한다는 깊은 통찰이다. 삶에서 왜 치유가 필요한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치유가 가져다주는 이로움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책이다.

죽음 문턱서 돌아와 바라본 삶
명상 시작 후 고통 뿌리 알아내
위빠사나로 더 깊은 치유 경험

저자는 중독에 빠져들게 하는 위험한 약물로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지 않고 대신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다. 그러기 위해선 강한 의지가 필요했다. 그 과정은 힘들고 길었지만 변화는 분명하게 일어났다. 저자는 그 여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고, 그 길을 헤쳐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방치했던 몇 년 동안 무거워진 마음을 다시금 가볍게 만들어줄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명상을 시작한 후로 어디서 고통이 오는지 비로소 그 뿌리를 알아차렸다. 걱정과 두려움 없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단순한 행동이 마음에 큰 평안을 가져다준다는 것, 나로부터 도망치는 일은 고독과 침묵을 끌어안기 위해 용기를 내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위빠사나 명상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치유해 나갔다.

저자는 극적인 변화를 이룬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삶의 변화를 가로막는 원인을 밝히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변화의 열쇠는 내면에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답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만들어 내는 거짓 이야기를 떨쳐 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참된 본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삶은 달라지고, 이것이 변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힘을 길러야 하는데 그것은 '자애', '알아차림', '내려놓음'이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치유의 필수 요소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를 깨닫고 실천한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면에 쌓인 과거의 그림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었듯이 치유 역시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없다는 것이다. 치유의 목적은 '완벽'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에 굴하지 않고 매 순간 더 나은 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인 융 푸에블로는 자기 치유의 힘, 건강한 관계 형성, 자신의 본성을 알기 위해 노력할 때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제로 글을 쓰는 작가이자 명상가다. 본명은 디에고 페레즈(Diego Perez). '융 푸에블로'는 '젊은 사람들' 혹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서 그의 필명이다. 그는 전 세계에 3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인스타그램 및 다양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무늬만 불자에서 신심 깊은 불교학자로



혼잣말
허남결 지음
모과나무 / 1만9천원

"부처님의 법음(法音)은 제대로 듣고 올바로 실천할 때, 그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 차게 되는 이치를 갖고 있다. 부처님은 나에게 더 큰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방편으로 나의 조그만 소원을 들어주셨던 게 아닌가 싶다.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앞으로도 인연의 끈과 기도의 힘을 소중하게 되새기면서 참회, 정진하는 마음으로 여법하게 살아볼 작정이다."

오랜 세월 무늬만 불자로 살아온 저자가 우연한 계기로 부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되면서 어느덧 신심 깊은 불교학자로서 정년을 앞두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책 〈혼잣말〉에는 저자가 그렇게 지나온 불연의 순간들을 기록한 자전적 에세이 60여 편이 실려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마련이다. 만약 이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독특한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된다면 그 경험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승화시키는가가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자 역시 간절한 기도 이후에 부처님께서 작은 소원을 하나 들어준 일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서 부처님의 명호를 간절하게 되뇌고 있다. 물론 이제는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닌 부처님이 보여주신 공덕에 대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저자 스스로도 이 책을 쓰면서 "이제야 비로소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삶의 다짐들을 스스럼 없이 고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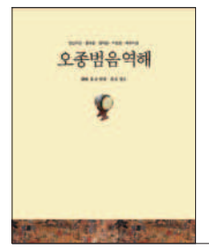
삶이 불안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은 그 순간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 도피처로 숨어들기보다는 도피안을 향해 올바른 진리의 세계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

책은 저자가 불교계 여기저기에 기고한 칼럼들을 모은 것으로,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지금의 감상과 앞으로의 다짐들을 보태어 엮었다. 이 글들의 씨앗은 세상을 향해 외치는 말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정년퇴임을 앞두고 지나온 삶의 흔적들을 정리하며 다시금 글들을 곱씹어보자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읽혔다고 한다. 외부가 아닌 자신을 향한 일침이자 참회의 독백과도 같은 혼잣말이었음을 발견한 것이다.

저자는 누구보다 불교와 인연이 깊은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도 자식 잘되기만을 부처님 전에 빌고 또 빈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불법과 함께 일대사인연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부처님의 법음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한 개인의 독백으로만 그치지 않고 저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인연의 끈과 기도의 힘을 소중히 되새기면서 진리를 향해 정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박재완 기자

현대적으로 정리한 불교의례 해설서1



오종범음집
정우북스 / 8만원

조선시대 대표 불교의례서 〈오종범음집〉을 현대 의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쓴 해설서가 나왔다.

〈오종범음집〉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60년이 되는 1652년, 지선 스님이 사라져가는 범음을 안타까워하며 편집한 의문으로, 한국불교 의범 가운데 주석을 가한 최초의 자료로 불린다. '영산의문' '결수문' '중례문' '예수의문' '지반문' 등 다섯 가지 종류의 의례를 묶어 정리했다. 전통의 의문에는 가영이나 예수 소문, 절차 등이 따로 없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작법절차'나 '범음집'이 편찬됐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것을 보완한 의범을 편집해 의례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편집된 의문마다 특성은 있으나 편집 절차의 당위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다.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3호 경제소리 보유자이자 조계종 초대 어장 동주 원명 스님은 이 같은 현실을 보완해 전통의 범음을 정리하고자, 전통 범음의 대분을 정리했다. 번역과 주석을 달고, 기존 의례와 새로 생성된 의례 절차를 설명하고 '오좀범음역해'라고 이름을 붙였다.

동주 원명 스님은 "이 책은 단순히 〈오종범음집〉을 번역한 데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의례를 교감한 후 번역과 해석을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3호 경제소리 이수자이자 조계종 어산 종장인 정오 혜천 스님은 "바르게 불교 의례를 실천하며 스스로 수행과 교화의 힘을 길러 자신의 득도는 물론, 타자의 득도도 도울 수 있다"면서 "의례를 바로 실행함으로써 십법계의 성인께 바르게 공양 올릴 수 있고, 또 육도의 여섯 범부에게 공양을 베풀어 그들의 해탈 열반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은호 기자



천 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선의 정수!
격절록 역주
원오선사가 한 철 안거 동안 제자들의 확철대오를 위해 설한 법문으로, 선종의 종장인 설두중현과 원오극근의 언어도단, 촌철살인의 자유자재한 경지를 맛볼 수 있다.
원오극근 지음, 덕우 강승욱 역주/신국판/양장/624쪽/값 35,000원

아비달마 수행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설일체유부의 수행도론
초기경전과 아비달마 논서를 분석하여, 유부의 수행도론은 5온에 대한 단계적 통찰과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유부의 이론과 수행의 전모를 조망하였다.
김경희 지음/신국판/양장/320쪽/값 23,000원

초기불교 수행자는 가족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
인도불교 사원 생활과 가족 관계
율장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초기 인도불교 승가에서의 가족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상식과 관념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뒤흔드는 파격적인 연구서!
쉐인 클라크 지음, 임은정 옮김/신국판/무선/400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창건 50년 한마음선원, 도심포교 새 장 열다

대행선연구원 제19회 계절발표회
이성수 국장, 50년 성과 등 조명
선법가, 합창단 등 문화포교 선도
불교 세계화 위해 해외지원 설립
"시대 맞는 새로운 포교 실천해"
이현정 대표 "불교언어 개발" 주장


묘공당 대행 선사가 창건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전경. 1972년 대한불교회관으로 시작된 한마음선원은 도심포교의 새 장을 열었다.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주인공 관법으로 생활불교를 전했던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창건한 한마음선원의 50년 역사를 되짚고 포교적 성과를 살펴보는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7월 20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19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계절발표회에서 이성수 불교신문 편집국장은 '한마음선원 50주년 성과와 한국불교에 끼친 영향'을 통해 한마음선원의 포교 활동이 한국불교 교단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폈다.

이에 따르면 1970년대 한국불교계는 정화운동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운동을 펼치는 등 재도약에 나서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제4공화국이 출범하며 새마을운동과 산업화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이로 인해 도시화 현상이 빠르게 이뤄지기 시작했고, 인구가 집중되는 도심에서의 포교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도심포교의 중요성을 일찍이 살핀 대행 선사는 1972년 경기도 안양에 현재 한마음선원의 전신인 대한불교회관을 설립했다. 대행 선사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가치관의 혼란을 겪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참된 자기 발견'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전법했고, 한마음선원은 외연을 확장해 나갔다.

1982년 조계종에 사찰을 등록한 한마음선원은 국내 지원 15곳, 해외 지원 10곳을 개원하며 포교의 지평을 넓혔다. 이 같은 국내외 지원 개원들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함께 한국불교 사상을 한국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편집국장은 "한마음선원은 안양본원을 중심으로 전국 지원이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전법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한국불교계에서 교구본사 또는 교구를 운영하는 종단과 (재)대각회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 조직을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곳은 한마음선원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마음선원의 해외지원과 대행 선사의 법문은 불교의 관심이 고조되는 서구사회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며 "특히 티베트·일본불교 등이 자리잡고 있는 서구사회에 한국불교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라고 밝혔다.

대행 선사가 창건한 한마음선원은 신도조직을 중심으로 '문화 전법·포교'를 선도했다. 한마음선원은 1972년 학생회를 창립하며 전법에 나섰고, 본원 신도회(1980), 청년회(1980), 어린이회(1982)를 창립하며 신도 조직을 구성했다.

1984년 안양본원에서 창단한 '선법합창단'으로는 불교음악을 통한 포교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1994년에는 거사, 청년, 어린이 합창단을 창단하며 전법 방법의 초점을 문화에 맞췄다. 한마음선원은 1985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봉축대음악제에 참가했으며, 1986년 한마음합창단 봉축연합합창제를 성황리에 거행했다. 또한, 1986년 불교한마음국악포교단을 창립하며 국악을 통한 불교 포교에 나섰다.

이 편집국장은 "한마음선원의 문화 전법은 대행 선사의 선구자적 인식과 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했다"면서 "찬불가의 현대화를 통해 포교와 신심 증장에 기여했으며, 불교음악인 양성과 한국음악 발전에도 이바지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편집국장은 한마음선원이 한국사회와 불교교단에 미친 기여에 대해 △이웃을 돌보는 동체대비행 실천 △영탑공원 조성을 통한 장례문화 선도 △인터넷, 유튜브 신행문화 확산 △한글 경전 활용과 불교학 발전으로 나눠 조명했다.

이에 따르면 한마음선원은 1982년 독립기념관 건립 성금 기탁을 비롯해 △소년소녀가장 지원 △수재민 돕기 성금 △북한 농업지원 기금 △코로나 극복 성금 등 다양한 자비행을 펼쳐왔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위치한 광명선원에 2000여 평의 영탑공원을 조성했고, 현재는 선대의 조상까지 모두 모실 수 있어 전국 각지에서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을 창간하고, 불교 최초 인터넷 포털사이트 부다피아·세계 최초 불교 인터넷 방송국 HBTV(한마음 불교방송국)를 개설하며, 미디어 포교에 나선 것도 한마음선원의 주요한 성과다.

이 편집국장은 "한마음선원은 창건 이후 안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포교 방식을 도입해 이를 실천했다. 그 핵심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기반해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실현하는 것이었고, 빠른 성장의 배경이기도 하다"고 평가하면서 "전근대의식과 현대 사조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생활을 근간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안내한 것이 주효했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존중하는 동시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마음선원은 창건 50주년을 넘어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서고 있다. 지난 50년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마음선원의 스님과 신도가 지혜를 모으는 한편,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노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계절발표회에서 이현정 '이현정 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사부대중의 불교언어 개발을 통한 전법활동'을 통해 전법에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접점과 필요성을 살폈다.

이현정 대표는 "불교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오롯이 전할 수 있는 내공을 길러야 한다. 설법언어를 통한 전법행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빠르게 진행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부처님의 말을 전달하는 설법언어행으로 개인주의로 치닫는 현대인들을 다시 집중시키고 연결시켜 집단적 사고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전략과 기획, 연구와 노력, 청중을 생각하는 자비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발표회의 좌장은 박경준 동국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논평자로는 김은영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교수, 김두식 동국대 대우교수 최원섭·오진형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했다.

또한, 2023년부터 시작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에서는 강릉지원 혜인 스님이 강릉지원 도량 현황과 불사 과정을 소개했다.

발표회에 앞서 진행된 입재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한마음선원의 50년 역사와 대행 선사의 업적을 30분 내외로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귀한 자료를 찾아서 잘 정리해 감탄했다"며 "선원에 인연된 교수님들이 많은 논문을 쓰셨다. 그럼에도 선원 조형물 등 많은 연구 주제들이 남아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주제의 연구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행선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한마음연구〉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하기 위한 7월 7일 화합재에 동참해준 사부대중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린다"면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승격 결과는 12월에 나온다. 이를 위해 사부대중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천년고찰 정암사 문화유산 만나다

월정사 성보박물관 특별전
7월19일부터 9월22일까지

천년고찰 정선 정암사의 성보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월정사 성보박물관(관장 해운 스님)은 정선 정암사와 공동으로 7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24 특별전 '천년고찰 태백산 정암사'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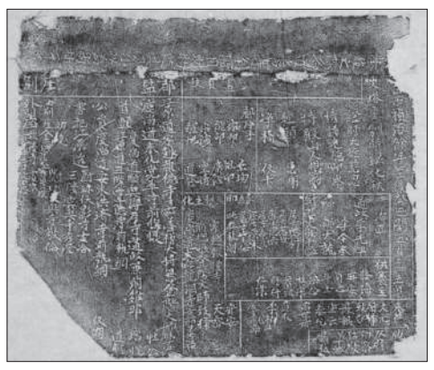
천년고찰 정선 정암사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갈래산 정암도'와 수마노탑 출토 탑지석과 적멸보궁 중수비 탁본 등 56건 56점이 소개된다.

특별전 '천년고찰 태백산 정암사'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된다. 1부 '정암사, 역사속의 기록들'은 정암사의 문헌 기록에 대해서 다뤘다. 전시에서는 창건주 자장 율사와 정암사의 창건에 관한 문헌기록들인 〈삼국유사〉〈속고승전〉, 〈정암사사적편〉 등이 공개된다.

2부 '출토유물을 통해본 정암사'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정암사 경내의 발굴조사를 통해 발견된 각종 출토유물들이 전시된다. 창건과 조선시대 위주 기록 외에 비어있던 정암사의 기록이 5차까지 진행된 발굴조사와 출토유물들을 통해 특히 고려시대 화려하게 꽃 피웠음을 알 수 있는 큰 의미를 가진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8세기까지 추정할 수 있는 인화문토기, 통일신라시대의 연화문막새편와 정암사 사명과 연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평3년명기와, 정암율사강명기와 등이 있다.

3부 '정암사의 문화유산'에서는 정암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수마노탑과 적멸보궁에 대해 다룬다. 수마노석탑과 적멸보궁에 관하여 1858년부터 1874년에 이르는 중수기록이 담긴 수마노탑출토탑지석탁본, 적멸궁법당중수기, 보탑중수비탁본 등을 포함하여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까지에 이르는 탑과 보궁의 각종 이미지 자료들이 공개된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은 "강원도와 평창군을 방문한 불자와 국민들에게 정선 정암사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알리는 뜻깊은 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월정사성보박물관 특별전에 전시되는 수마노탑탑지석탁본.

"무엇이 삶을 구원하는가?"
★★★★★
오프라 윈프리가 선택한 화제의 그 책!
세상을 놀라게 만든 무고한 흑인 사형수의 뭉클한 고백
일상이 폭력인 곳에서 붓다를 만나 내면의 자유를 찾다!
붓다가 된 어느 흑인 사형수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의 한 무고한 사형수가 전하는 마지막 인생 수업
자비스 제이 마스터스 지음
권혜림 옮김
456쪽 | 22,000원

순수한 아이들의 놀이처럼
일상을 놀이하듯 살아갈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술이 된다!
따분한 일상에 창조적 숨결을 불어 넣는
'놀이의 힘'
상상을 현실로 이뤄 주는 타고난 창조적 힘에 관하여
무엇이 삶을 놀이로 만드는가
스티븐 나흐마노비치 지음
권혜림 옮김
280쪽
18,000원

한때는 '나'였던 것들과의 작별,
이것이 최고의 '나'로 거듭나는
비결이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
★★★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명상·영성 분야 1위) ★★★
★★★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들의 추천 ★★★
지금 이 순간 나와 마주할 때 달라지는 것들
내면치유
융 푸에블로 지음
권혜림 옮김
262쪽
2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마음 평안해지고 싶다면 방하착하라”

진우 스님의 ‘선명상 아카데미’ 제5강

‘죽어도 결국 산다’

7월 23일 열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아카데미’ 제5강은 ‘죽어도 결국 산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에서 진우 스님은 놓아버림(방하착)으로써 고락(苦樂) 생멸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강의 내요을 정리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리=신중일 기자 · 김가령 수습기자



7월 23일 열린 선명상 아카데미 제5강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법문을 설하기 전 대중과 합장 반배로 인사하고 있다.

전륜성왕도 자신이 괴로우면 힘들어
苦樂을 최초로 해소한 분이 ‘부처님’
‘방하착’, 선불교 기본이자 최종 목적
놓으면 고락의 윤회서 벗어날 수 있어

오늘은 강의 5번째 시간이다.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직도 선명상의 방법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 이 강의는 본격적으로 선명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선명상의 원리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상이 무너져도 내가 상관없으면 괜찮다. 반대로 극락정토에 있어도 내가 불편하면 소용없다. 불교에서 감정을 고락사(苦樂捨)의 삼수(三受)라고 한다. 현재 나의 감정이 나타나는 패턴이 어떤지 알아야 한다. 육경(六境)인 대상의 본질과 본질을 보고 내가 느낀 바를 알아야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내 감정을 컨트롤할 힘이 생긴다. 그다음에야 구체적인 선명상의 방법을 훈련할 수 있다.

부처님은 인연생기(因緣生起), 연기(緣起),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물리고 물리는 중중무진(重重無盡)이 바탕이 돼 즐겁고 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빌 게이츠도 전륜성왕도 자신이 괴롭다면 힘들다.

이전 시간에 말한 서양철학자들은 아는 게 많지만,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했다. 최초로 자신의 괴로움을 해소한 분이 부처님이다. 그리고 역대 조사들이 부처님의 이고득락(離苦得樂), 니르바나(Nirvana, 열반)를 여러 가지 수단으로 대중에게 전해왔다. 부처님이 알린 많은 방법 중 조사선(祖師禪)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이 강의 외에도 많은 명상 지도자가 여러 명상법을 알려준다. 그러나 먼저 명상을 왜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와 원리를 알아야 자신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아 행할 수 있다. 참고로 9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국제선명상대회에서 기본적인 108가지 선명상 방법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현상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다. 부처님은 현상을 공(空)이라고 했다. 현상이 진공이긴 하지만 내가 진공이 아니게 대해 오류와 리스크가 생긴다. 그래서 내가 괴로워진다.

우리는 모두 원자 구성체다. 원자가 모여 사람과 물체가 됐다. 우주만물이 원자, 소립자, 쿼크 등으로 이뤄져 형태를 만든다. 아인슈타인은 세상만물을 ‘신’이 만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조물주가 만든 세상은 건들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 닐스 보어는 반대해 “생각은 현실이 된다”고 정리했다. 이는 불교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다. 내가 지금 너를 만들고 현실을 만든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무의식, 잠재의식으로 봤다. 불교적으로 아뢰야식(阿賴耶識), 잠재된 습식과 버릇이라고 한다. 반복적인 경험에 의한 현상이 아뢰야식에 있다가 현실에 튀어나와 형상화된다. 내가 보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양자역학적으로, 불교적으로 생각은 현실이 된다.

결론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조차 인식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모두 내가 만드는 일체유심조다. 내가 현상을 만드는 걸 인정한다면 내가 기쁘고 슬픈 것조차 내가 만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고락(苦樂)에 관한 내 느낌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제어하지 못하면 육도윤회(六道輪廻)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벗어나는 게 해탈(解脫)이고 고락에서 탈출하는 깨우침이다. 깨우치고자 하면 이 현상도 결국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평정심이 생긴다. 평정심이 생기면 어떤 현상, 사고를 봐도 흔들림이 없고 시공이란 현실과 생사라는 상대적 현상이 사라진다. 고락도 당연히 사라진다. 이 상태가 중도다. 깨치지 못한 상태이기에 깨우침이 있고 중생이 있기에 부처가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명상을 한다면 그 효과는 100%, 200%, 1000% 이상 나올 것이다. 원리를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고 하는 게 효과가 크다.

오늘은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의 최대 난제는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다. 부처님도 행복하기 위해 출가한 게 아니라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출가했다. 이는 출가 수행자들도 마찬가지다. 괴로움의 종류와 형태는 우주의 별만큼 많을 것이다. 가지각색의 감정과 현상 모두 괴로움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生老病死) 4고(苦)에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애별리고(愛別離苦), 미워하는 사람과 마주치는 원증회고(怨憎會苦),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구부득고(求不得苦), 자기 몸과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오음성고(五陰盛苦)까지 더해져 8고가 있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다고 괴로움이 없지 않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괴롭다.

기쁘거나 괴로운 감정은 반복된 경험에서 비롯된다. 지난 경험은 사라지지 않고 누적돼 잠재의식, 아뢰야식에 남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나타난다. 피할 수 없는 윤회 현상이다. 먼지에서 우주까지 중첩된 현상의 연속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떤 게 원인이고 결과인지 모를 정도로 겹친다. 부처님은 이것을 ‘연기적 현상’이라고 파악하셨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거나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일들은 우연이 아니다. 수많은 조건이 결합해 찰나에 사고가 나고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걸 필연(必然)이라고 한다. 부처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연기적 인연의 구조가 애초에 형성돼 있었다.

이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의 감정이다. 내가 기분이 좋냐 나쁘냐만이 결과로 남는다. 부처님은 이것을 ‘업 덩어리’라고 표현했다. 고락이라고 하는 즐겁고 괴로운 감정 덩어리를 가진 이가 중생이다. 중생은 감정 덩어리를 가졌기 때문에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 이를 없애기 위해 업식(業識)을 제거해야 한다. 차멸고피멸(此滅故彼滅), 하나를 제거해야 다른 하나가 자연히 사라진다.

즐거운 시간 다음에는 괴로운 시간이 다가온다. 이것을 동시성, 줄탁동시(啐啄同時)라고 한다. 불교에서 보면 나의 업식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해가 질 때가 되면 지듯이 내가 즐거운 업식이 일어날 때가 되면 즐거운 현상이 일어나고, 괴로운 업식이 일어날 때가 되면 괴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야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

이를 위해 평상시 비교적 고요할 때 꾸준히 선명상을 연습해야 한다. 그래야 그 어떤 극단적 사건사고가 일어나도 업식이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사라진다. “넘어가야지, 지나가야지”라는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다. 평소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자 기초이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건 고락의 기분을 잠재우는 것이다. 마음의 생사고락을 줄이고 감정과 업의 진폭을 줄여나갈 수 있다.

일상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다.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할 때도 많은 조건에 의해 방해받는다. 이런 방해가 생길 때마다 기분 나빠하지 않고 나의 업식에서 기분 나쁜 현상이 일어난다고 납득해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기분 나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조절이 가능할 때 나의 제대로 된 능력이 발휘된다.

운동선수에게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많이 한다. 정말 열심히 연습해 놓고 본 시합 때 욕심을 내서 긴장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일상에서도 마음을 비워야 평상시 연습한 실력이 나타난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면 오히려 크게 발휘된다. 그것을 믿는 게 신심(信心)이다. 일상을 살면서 이런 기본 개념을 갖고 살아간다면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어떤 현상도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에게 ‘놓음 명상’을 제안한다. 그대로 놔버린다는 명상이다. 불교의 ‘방하착(放下着)’은 선불교의 기본이자 최종 목적이다. 놓아버리면 그때그때 좋은 것, 싫은 것도 고락이 생멸하는 육도윤회에서 멈추고 놔버릴 수 있다. 결국 마음이 평안해진다.

고락이 생멸하는 것까지 놓아버리면 마음이 평온한 중도의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내가 뭘 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저절로 떠오른다.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신구의삼업청정(身口意三業淸淨)이 이뤄진다. 생각이 청정해져 인과 분별없이 업이 깨끗해진다. 그 자체로 평온해진다. 벌어지는 모든 일을 저절로 대하는 보살행(菩薩行), 육바라밀행(六波羅蜜行)이 가능해진다.

‘놓음 명상’은 평상시에 해야 한다. 누가 내게 싸움을 걸어와 논쟁이 벌어져도 인과를 짓지 말고 놓아버려야 한다.

진우 스님, 궁금해요

Q 해외 선행 연구에 따르면, 명상 지도의 한계로 명상 지도자들의 교육 방식 차이가 꼽혔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실 방침이신가요?

A 지금 선명상 프로그램 지도법은 어느 정도 표준화가 진행된 상태다. 이것이 갖춰지면 선명상센터와 템플스테이, 특히 스님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원에서 연수받는 스님들에게 의무적으로 선명상 수업을 듣게 해 점수를 부여할 준비도 하고 있다. 또한 각 사찰의 주지스님께도 선명상 지도법을 전달해 대중에게 알리게 할 방침이다.

Q 명상하다 보면 분별하지 않기 위해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정을 무시하는 것인지 현상을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A 명상할 때 내 기분을 먼저 살펴라. 내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즐겁든 나쁘든 극한의 상태일 때는 차분해지길 기다려야 한다. 구정물을 가만히 두고 시간을 보내면 불순물이 가라앉고 깨끗해지듯이 멈추고 지나가길 기다려라. 현상을 보고 수많은 조건에 의해 벌어진 결과가 어떤지 시시비비는 하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먼저다.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불교 수익사업, ‘자리이타’ 정신에 바탕을”

주목! 불교 논문

종교시장의 상업주의 현상과 한국불교 수익사업의 정향(正向)

종교시장은 여러 종교들이 사람들로부터 선택되어지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적 상황을 지칭하는 용어다. 종교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상업주의는 피하기 어렵다. 한국불교 종무행정과 사찰 경영을 연구해온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선학〉67호(한국선학회 간행)에 ‘종교시장의 상업주의 현상과 한국불교 수익사업의 정향(正向)’을 게재했다. 다종교화와 탈종교화로 인한 종교의 생존 경쟁에서 심화되고 있는 종교시장의 상업주의 현상을 분석하고 한국불교 수익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조기룡 교수의 논문을 발췌 · 정리했다.

정리=신중일 기자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 홈페이지 화면. 조계종출판사를 승계해, 불교계 경제생활공동체 구현을 모토로 새로이 출범한 영리법인이다. 불교 수익사업의 모델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종교시장’이라는 말은 왠지 대중에게 낯설 수 있다. 혹자는 이 말에서 거부감 내지 불경함까지 느낄 여지도 있다. 이는 종교시장이 성스러운(聖) ‘종교’와 세속적(俗) ‘시장’이라는 상반된 속성의 두 용어가 결합된 합성어라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막연한 거부감을 떠나서 현실사회를 직시하면 종교시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종교시장은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상품으로 거래되듯이 종교가 마치 상품처럼 선택되어지는 현상을 표현한 말이다. 사람들은 흔히 종교를 무조건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평화, 안정, 안식 내지 철학, 예술, 나아가 사회적 소속감 등에 이르기까지 종교가 제공하는 편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신앙으로 삼고는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종교의 선택도 수요와 공급에 따르는 시장의 교환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종교시장론자들에 의하면 종교시장에서도 여타의 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업주의가 주요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종교조직의 비종교재 또는 비종교활동을 통한 수익이 용인된다. 그러나 붓다는 승가의 상업주의를 경계하여, “출가자는 사고파는 행위로부터 멀리 떠난다”라고 설하였다. 또한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 제20조 판매계(販賣戒)는 “어떤 비구라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매매를 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다”라고 하여 비구의 매매행위를 금지한다. 불교의 교조인 붓다는 승가의 비종교활동 수입 즉, 수익사업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종교시장론의 주장과 붓다의 교설은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 특히 비종교재나 비종교활동을 통한 수익사업을 두고는 상충한다. 불교교단의 행위 내지 선택의 기준은 붓다의 교설이 되어야 한다. 한국불교가 세속적 영리조직과는 달리 탈세속적 종교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는 불교신도의 보시금만으로는 존속하기 힘든 한국불교의 상황에서 붓다의 교설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종교조직의 기업화

오늘날 한국사회의 종교교단들은 수익을 위해 기업을 직접 경영한다. 한국종교시장에서 종교조직이 기업의 양태를 보이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한국가톨릭의 ㈜평화드림, ㈜평화종합건설, ㈜평화IS와 조계종의 ㈜도반HC를 들 수 있다.

한국가톨릭은 ㈜평화드림, ㈜평화종합건설, ㈜평화IS 등 3개의 주식회사를 통하여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평화드림은 한국가톨릭 교단 및 학원 산하기관에 대한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가톨릭 교단에서 소비되는 물품은 모두 이곳을 통해 구매되어 유통된다. ㈜평화종합건설은 한국가톨릭 교단과 학원 산하의 시설 신축 공사를 주로 하고 있다. ㈜평화IS는 가톨릭 병원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는 ㈜조계종출판사를 승계하여, 불교계 경제생활공동체 구현을 모토로 출범한 종단의 영리법인이다. ㈜도반HC는 ㈜조계종출판사와 ㈜도반HC기획 등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도반HC는 경영지원본부, 영업부, 달력사업부, 디자인사업부, 승소(유통)사업부·불교용품전문매장 승소 등의 부서로 조직되어있다. 자회사인 ㈜조계종출판사는 경전과 종단의 교재 및 경전 출판 불사,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발굴하고 불서로 제작하는 종단 대표 출판사이다.

현대사회서 종교도 자본주의 영향
부처님 “사문 판매행위 멀리해야”
붓다 교설 입각해 수익구조 고민을
正命적 사업인 ‘불교명상’ 주목해야

종교교단의 기업화는 종교교단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교단 산하 조직과 단체에 좋은 물건을 공급하고 우수한 건물을 짓고 그로 인한 수입은 교단 사업에 재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해준다. 더 나아가 종교교단이 운영하는 기업은 여타의 기업과는 다른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서 윤리경영에 근거한 보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베풂’이라는 교리와 신앙의 논리 속에 생존해야 할 종교교단이 ‘이윤’이라는 시장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했을 때 상업주의 폐해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한다. 이를 간과하면 자칫 종교조직이 영리조직과 다를 바가 없이 될 수도 있다.

사찰경영과 수익사업

조계종의 종단 중앙이 기업 설립을 통한 수익사업을 모색하고 있다면, 개별 사찰들은 기존의 기념품점과 카페 운영에서 나아가 건강식품과 식재료의 생산과 판매 그리고 납골당 운영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기념품점과 카페 그리고 납골당의 운영은 전국 사찰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건강식품과 식재료의 생산과 판매는 여러 사찰들이 모색하고 있지만 기념품점이나 카페의 운영보다 보편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찰들이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영농법인 설립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기한 사례에서는 통도사가 ‘영축총림 영농조합법인’을, 송광사가 ‘영농조합 솔두레’를, 봉화 보광사가 ‘영농조합법인 발우’를, 천안 승천사가 ‘영농조합법인 승천’을, 영광 불갑사가 ‘불갑사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영농법인은 개별 사찰 특히 농촌의 사찰들이 지역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수익사업 방안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재배해도 제값에 팔기 어려운 현실에서,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서 소득을 높이는 영농법인은 시대에 적합한 농촌과 사찰의 상생 프로그램이다. 경제적이 아닌 포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친화 포교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사찰과 지역주민 간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양자의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포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 수익구조 정향은

혹자는 한국승가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여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붓다가 “(출가자는) 사고파는 행위로부터 멀리 떠난다”라고 하였기에 혹자의 주장이 가장 이상적인 여법한 방안임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한국승가가 이상을 좇아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승가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한국불교의 수익사업은 종단과 사찰의 수익 창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회와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한국불교의 수익사업은 자리이타의 사업이어야 하는 것이다. 종단과 사찰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수익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불교단체의 자리이타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사업과 의료사업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두 분야는 중생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주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궁극적 존재 목적과 다르지 않다. 한국불교종단들은 사회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다.

불교정향 사업 사례: 불교명상

한국사회는 ‘웰빙’을 지나 ‘힐링’이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힐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하고 관련 비즈니스가 빠르게 성장해 가면서 ‘명상산업’이 급성장하는 추세도 보인다. 한국사회의 힐링 현상에 불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이다. 조계종은 권역별 명상힐링센터 건립을 종단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음치유가 종교의 본연적 기능에 부합하면서도 포교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불교명상의 사업목적은 자리이타적이다. 불교명상의 궁극적 목적은 고타마 싯다르타가 행한 수행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불교명상의 근원이 불교수행이기 때문에 불교명상의 사업목적은 탐·진·치에 얽매인 이윤추구가 아니라 붓다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수행을 하였듯이, 그리고 일체 중생이 고통을 벗어나게 하고자 전법을 하였듯이, 불교교단과 여타 사회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함에 있어야 한다.

불교명상의 사업내용은 정명적이다. 정명은 ‘바른 생활’과 ‘바른 생계’를 아울러 의미하는 것으로, 출가자에게는 바른 생활 수단을, 재가자에게는 바른 직업을 지칭한다.

더불어 불교명상의 수익활용은 보시적이어야 한다. 한국불교는 불교명상의 상업화를 경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창출된 수익의 보시적 활용이다. 한국불교가 명상을 사업적 관점에서 전개할 때 불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불교명상을 현실적인 재정의 부족 차원에서 사업으로써 전개하였다고 할지라도 창출된 수익은 종단과 사찰의 성장에 한정하지 말고 대사회적인 분야에 지출함이 불교적으로 여법하다. 이것이 상업명상과 불교명상을 구분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조기룡 교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식약처에서 인정한 의료기기법 제2조
특허등록
의료기기 근적외선 침대
피부 피하층까지 침투하여 온열효과가 뛰어나며 산화질소를 생성해
현재 세계 각국 의료계의 질병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열 근적외선 피부침투율 원적외선의 12배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숯가마의 열기가 고스란이 녹아든
숯(탄소) 침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원활, 각종중금속배출
• 통증완화(신경통,관절통,견통예방)
• 숙면(불면증,피로회복,좌골신경통)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저혈압),
• 암예방(온열에의한 악성종양의 사멸)
• 새집증후군(포름알데히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온열요법 건강매트·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 (SS사이즈 : 1100×2000)
사용전 사용후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 20만원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⑮ 전북 부안 내소사

▶한줄 요약
어느 계절에 가도 정겨운 사찰인 능가산 내소사. 700여 그루로 된 전나무 숲길, 당산나무를 중심으로 한 내소사 경내, 보종각 범종, 목재 하나 부족한 대웅보전과 관음조가 날아간 곳에 세워졌다는 관음전까지. 내소사는 '이곳에 들어오는 이의 모든 일이 소생(蘇生)하게 해달라'는 뜻이 담겼다.



속진번뇌 씻어 만물 소생케 하는 도량

〈蘇生〉

소생(蘇生)하게 하소서

전북 부안 내소사는 우리나라 8대 명승지 가운데 하나인 변산반도 남쪽에 자리한다. 예전에는 내소사, 선계사, 청림사, 실상사는 변산의 4대 명찰이었다. 그런데 전란을 거치면서 나머지 절은 사라지고 지금은 내소사만 남아 명찰임을 증명하고 있다.

내소사는 633년(백제 무왕 34) 혜구 두타 스님이 소래사(蘇來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다. 당시에는 대소래사와 소소래사가 있었다. 지금의 내소사는 예전의 소소래사다. 소래사라는 절 이름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내소사로 바뀌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1532년에 증보하여 간행한 〈동국여지승람〉, 18세기에 편찬한 신경준의 〈가람고〉 등에는 소래사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다. 그런데 1700년에 제작된 괘불, 내소사 동종에 새겨진 1856년의 글에는 내소사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한동안 두 사찰 이름이 혼용되다가 이후 언제인가 내소사로 정착되었으리라.

내소사는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었다. 이후 조선 인조 때 청민 선사가 중창하였으며, 인조 11년(1633년)에는 대웅보전을 중건하였다. 그 후 1902년 중수가 있었으며, 특히 1983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전각을 복원, 건립해 현재의 대가람을 이루었다.

내소사는 어느 계절에 가도 정겨운 사찰이다. 사찰 앞 상가가 즐비한 도로 끝부분, 역기억자로 꺾인 지점에 일주문이 있다. 일주문에는 "楞伽山 來蘇寺"(능가산 내소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능가산은 부처님이 설법하던 장소다. 능가는 '가기 어렵다'는 뜻으로 능가산을 난왕산(難往山), 불가왕산(不可往山) 등으로 번역한다. 내소는 사찰 측에서 발원을 담아 '이곳에 들어오는 이의 모든 일이 소생(蘇生)하게 하소서'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전나무 숲길을 지나서

사람들이 내소사를 찾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전나무 숲길 때문이리라. 700여 그루로 된 전나무 숲길은 일주문에서 사천왕문까지 600m 가량 이어진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제7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함께 나누고픈 숲길'로 선정될 정도다. 평지의 흙길로 전나무 숲이 터널처럼 하늘을 덮고 있어 계절에 상관없이 걷기 좋다. 이곳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리고 곧 카메라 앞에 자세를 잡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해 몇 그루의 나무가 훼손되었다는 것.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이 또한 소생하여 돌아오리라.

전나무 숲이 끝나는 순간 단풍나무 숲이 잠깐 이어진다. 그리고 〈대장금〉 촬영지였던 작은 연못이 나타난다. 바로 벚나무 숲길이 100m가량 이어지고, 그 끝에 천왕문이 있다. 늘 푸른 전나무 숲길도 좋지만, 가을에 단풍나무와 벚나무가 울긋불긋 물든 모습도 좋다. 물론 봄날 벚꽃이 화려하게 펴 부처님 뵈려 가는 길을 장엄하는 순간도 아름답다. 그리고 눈이 내려 눈길과 조화를 이루는 전나무 숲길도 멋지다.

천왕문을 지나면, 눈앞에 당산나무를 중심으로 내소사 경내가 펼쳐진다. 1000년이 된 느티나무다. 당산(堂山)은 마을의 수호신이 머무는 곳을 말한다. 매년 정월 보름이 되면 이 당산나무 앞에서 당산제를 지낸다. 내소사 스님들이 석포리 주민과 공동으로 당산제를 지내는 까닭에 '내소사·석포리 당산제'라 한다. 불교의례와 민간신앙이 함께하는 독특한 사례다. 경내에 있는 당산나무를 할머니 당산이라 한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당산은 어디에 있을까? 지나온 일주문 앞에 있다. 지나쳤다면 나가는 길에 살펴보시길.

또 쉽게 지나치는 성보(聖寶)가 있다. 보종각(寶鐘閣) 범종이다. 범종루에도 범종이 있지만, 맞은편 보종각에도 범종이 있다. 보종각 범종은 원래 1222년(고려 고종 9년) 변산 청림사



전나무 숲길.

에 봉안되었다. 훗날 절과 함께 범종도 사라져 버렸다. 그러다가 1853년 한 농부가 야산을 개간하던 중 매몰된 범종을 발굴하였다. 발굴된 범종을 원하는 곳에 보내기 위하여 범종에게 개암사, 실상사, 부안 월명사 등을 차례로 물으며 종을 쳤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내소사로 가겠느냐고 묻고 나서 종을 치니 마침내 소리가 울려 내소사로 옮겨 봉안하였다. 그 범종에는 종이 청림사에서 만들어진 후 내소사로 옮겨진 경위가 간단하게 새겨져 있다. 2023년에 국보로 지정되었다.

목재 하나 부족한 채로 대웅보전을 짓다

내소사를 명찰로 만든 또 하나의 주인공은 대웅보전이다. 단청 없이 나뭇결 그대로 드러난 모습과 꽃무늬 문살로 유명하다. 1633년(인조 11년)에 건립된 이 대웅보전에는 건립 당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나라 목조 건물은 금속 못 하나 쓰지 않고 모두 목재를 짜 맞추어 짓는다. 먼저 이 전통기법과 관련된 이야기다.

내소사의 조실 청민 선사는 대웅전이 불타 없어지자 대웅전을 다시 세울, 인연 있는 목수를 1년 동안 기다렸다. 어느 날 밤 선사는 사미(어린 스님)에게 일주문에 누가 와 있을 것이니 가서 안내하라고 하였다. 사미가 일주문으로 나가니 스님 말씀대로 일주문 기둥에 사람이 누워있었다. 그 사람을 절로 안내하였다.

다음 날, 그 사람은 묵묵하게 대웅전의 기둥과 서까래를 만들었다. 이어서 5개월 동안 나무를 목침 크기로 토막 내었다. 그리고 3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목침만 다듬었다. 집은 짓지 않고 목침만 다듬는 목수에게 사미는 장난기가 발동하여 목침 하나를 감춰버렸다. 사흘 후 목침 다듬기가 끝난 목수는 목침 수를 세기 시작하였다. 목침 하나가 부족한 것을 알고 목수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일을 포기하려 하였다.

청민 선사는 목침 하나에 마음 두지 말고 그대로 불사를 진행하라고 달래었다. 이때 사미가 감추었던 나무토막을 내놓았다. 그러나 목수는 부정 탄 목재를 쓸 수 없다 하고 그 토막을 빼놓은 채 법당을 완성하였다.

지금도 대웅보전은 불단에서 문 쪽으로 바라볼 때 오른쪽 위 공포에 해당하는 목재 하나가 빠져 있다.

새가 붓을 물고 단청을 하다

대웅보전에 전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법당을 짓거나 벽화를 그리는 불사(佛事)를 진행할 때 수행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 백일불사, 천일불사 등 불사 기간을 정하고 모든 대중이 정성을 다한다. 그런데 가끔은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끝나지 않은 불사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중 내소사 대웅보전의 미완성 단청 불사 이야기가 있다.

우여곡절 끝에 내소사 대웅보전이 완성되었다. 이후 어느 화공이 찾아와서 단청하겠다고 자청하였다. 허락을 받은 화공은 단청하는 100일 동안 아무도 법당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법당에 들어간 화공은 밖을 나오지도 않고 음식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99일째 되는 날, 도저히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사미가 법당 안을 몰래 들여다보았다. 법당 안에는 화공은 보이지 않고 금빛 새 한 마리가 붓을 물고 날아다니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새는 단청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그냥 날아가 버렸다. 그리하여 법당 좌우에 쌍으로 그려야 할 용과 선녀 그림이 한쪽에만 그려져 있고, 한쪽에는 빈 채로 남아있게 되었다.

지금도 불단에서 볼 때 왼쪽 벽면 위쪽 중앙에는 그림이 없다. 그림을 그리던 새는 관음조(觀音鳥)로 관세음보살의 화신(化身)이라 한다. 관음조가 날아간 곳은 지금 뒷산 중턱에 있는 관음전 자리다. 새가 날아간 그곳에 관음전을 세운 것이다.

대웅보전 오른쪽 공양간을 지나 포장된 산길을 따라 15분 정도 올라가면 관음전에 이른다. 관음전 앞에서 펼쳐지는 전경을 보면 극락이 따로 없다. 모든 일이 소생하는 기분이 든다. 내소사에 가신다면 꼭 관음전을 가보시라. '관음전에 안 갔다면 내소사에 갔다고 하지 마라'고 말하게 되리라.

〈불교학자〉

"영적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빙의치유전문의'를 만나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숨기고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상담으로 빨리 벗어나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신기운천도 전문 도량
금강경독송수행 전문도량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94호 | 15 | 전면광고

남의 허물을 보면 입을 다물라.
자기에게 나쁜 점이 있으면 응당
들추어내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원주림》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남사천
- 대지 : 27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매가 : 3억
- 위치 : 부산포교원
- 시내공원앞
- 매가 : 12억
- 법당 : 100평
- 주차가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 채무채권 상담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387, 화룡사
- 가액 : 3천 2백만원

기타 문의는 전화로 알려 드립니다.

010-6688-994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산청원지
- 대지 : 약 530평 건물 3동, 탑 2기, 석등 2기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저온창고 5평
- 공양간 30평, 방 5개, 화장실 5개 스님 접견실, 주차공간 20대
- 가액 : 3억 3500만원

010-7364-860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5분
- 법당 : 약 23평, 단청필
- 요사체, 친견실, 산신각 각 1동
- 주차장 : 넓음
- 가액 : 3억

010-5550-9725
010-4001-84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포교원 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 수목장 및 납골당, 반려동물 화장장 등 최적지

010-4727-60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사 찰 안 내

- 매매가 7000만원
- 영천 북안면 약 60평
- 약사불, 조용한 기도처

010-9667-4898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김오곤 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먹는 법

- 한 포씩 500ml물에 타서 수시로 나누어 마신다
- 나만의 요리에 조금 뿌려 먹는다
- 컵에 조금씩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차처럼 나누어 마신다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구 입 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 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천지공사 새로운 천년을 여는 경신일 오시에 억억만겁과 평생 못찾는 비전법인 자성생명인 마음에 문인 현관을 단한번으로도 비구니·비구·보살사부대중 인간은 누구나 불성이 있기에 양반은 씨가 있으나 경신도통은 씨가없는 초일류스승·도인·신선 선녀 선비되는 도통으로 귀신 잡신을 부리고 조상영가들도 해탈하는 숙명통대법회행사



태일대사 작품
다문화방송 방영

생명과 마음의 문인 현관은 염불 · 목탁 · 명상 참선 어떠한 수행은 평생 못찾는것을 경신일 오시에 빛으로 천문을 열어 막힌두뇌 뇌하수체 양눈에 빛으로 현관을 열어 오장육부와 정신 심신 육신에 빙의된 삼시구충을 제도 암보다 무서운 증풍 치매 단명자 두뇌를 막는 귀신잡을제도 각종고시 수능 명문대학 진급 등 기억력 암기력 총명력을 살려 천재 · 수재 출세하는 진광진법으로 이생에 명부를 지우로 천부에 명부를 올려 죽엄을 면하는 천하제일도법으로 교외별전인 오문과 오통과 오안이 열어야 15진주되어 십력을 얻어 견성성불 도통으로 초일류스승 · 도인 · 선녀 · 신선 · 선비되는 어떤 종교에서도 찾지못하는 견성성불불도통하는 것이고 하늘땅에 감추워진 비법을 전하는 전경신도법.

요즈음 불교는 과거천년이나 현재나 미래도 변하지 않기에 타종교로 이제 새천년의 불교는 유불선이 하나로 되어야 외래종교에 밀려 국가관 민족의 얼과 혼 윤리도력과 이그러진 종교의 법도를 바로세워야 민족의 터전인 예성(충주)을 다시 찾고 국조한배검황제를 사살 왕검황제를 단군으로 덮어씌우고 신설동 동묘와 시골향교 공자상과 관운장 남의나라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며 한글 +−×÷ 가감승제를 빼서 자기네나라 국기로 사용하는 나라는 해와 달 별로쓰니 하늘에서 천지개혁 질병 개벽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있는 현실이며 예성을 찾고 국조왕검황제를 다시 모시는 즉시 지구촌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 소식 알아듣자 살것이요 이법을 전할 것이며 당신을 초대합니다.

행사입재 _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밤 해시 해제 24일 토요일 무박 2일
준 비 물 _ 간편한 옷 필기도구 농 협 _ 029-01-167866 곽한영태일
상담전화 _ 010-9292-3110 / 010-9718-4449 총무 (인천 부평구 대정로34)

천지공사 천문을 열어 도인 신선 선비 선녀되는 육경신 도통회총본산
사)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예성 용천사 · 태일대사 합장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94호 | 16 | 전면광고

사람이 사는 것은 한세상뿐이지만, 불경은 무수한 세월에 걸쳐 사람들을 제도하여 열반의 도를 얻게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반니원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속 · 증여 · 세금
보장자산
(밀착관리/비밀유지)

삼성생명 팀장 오은정 010-9573-4180

탈종공고

• 사찰명 : 성불사
• 주 지 : 수산 스님 (속명 : 문복수)
• 승 번 : 19-19-0001
• 주 소 : 부산시 북구 모분재로 34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대한불교임제선종 총무원장 법하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제1기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모집공고
(팔공산 범음범패 교육원)

모집대상
- 한국불교태고종 스님. 전법사. 교임 - 타종단 승려도 가능
- 불교신자 또는 부처님의 교법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

모집학과 및 교육내용
- 초기반 도량석, 종성, 예불, 삼보통청, 예불의식(법회 집전의식)
- 전문반 영남범패 전통의식, 다비식, 재의식(시다림, 49재), 점안의식, 불교사물(목탁. 요령. 징. 북. 바라. 작법. 의식이론 등)

교육일정
- 초기반 개강일 2024. 8. 26(월) / 수료일 2025. 1. 21(화)
- 전문반 개강일 2024. 8. 27(화) / 수료일 2025. 1. 21(화)

교육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사 3층법당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93)

접수 및 문의처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 (☎298-3634)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교무국장 법륜스님
(010-9233-8371)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뿔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뿔향


가루향 & 침향비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한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⑮ 최적의 차 보관법은

선인들은 차를 어떻게 보관했을까

요즘처럼 비가 잦은 계절이 되면 쾌적한 환경이 그리워진다. 차는 무덥고 습한 장마철을 견딜 에너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좋고 나쁨이 공존하는 것은 자연의 원리이니 습기가 많은 여름엔 차의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비가 내릴 때 차를 꺼내면 차에 습기가 침투할 수 있다. 만약 차에 습기와 다른 향이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일순간에 마실 수 없는 차로 전락한다. 왜 그런가. 이는 접물성이 강한 차의 속성 때문에 다른 향이나 습기를 잘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인들은 진기(珍奇)한 차에 한 번이라도 습기나 나쁜 향이 스며들면 한 순간에 차의 진기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터득했던 것이다.



명나라 문인 당인의 '품다도'. 도쿄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한편 사람들이 차를 좋아하는 연유는 심신을 평탄하게 조절해 주는 차의 효능 때문이다. 이는 차의 내적인 요소인 기운과 외적 요소인 향기, 맛, 색 등의 작용에 따른 결과이다. 차에서 보존해야 할 요소는 색과 향기, 맛, 기운이다. 이런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면 차는 감미롭고 기운도 활발한 차가 되니 이런 차를 마시면 힘이 나고 마음이 즐거워진다. 이런 차의 덕성을 터득했던 선인들은 이를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니 이는 고금의 다서(茶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사(茶事)의 핵심은 제다와 탕법, 그리고 차 보관법, 다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의 보관법은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쳤던 것일까. 이에 대해 논의해 보면, 차 문화를 집대성한 육우는 〈다경〉'사지기(四之器)'장에서 "종이 봉지, 희고 두꺼운 섬등지를 겹으로 꿰매서 구운 차를 보관하여 차향이 새어 나가지 않게 하였다.(紙囊 以剡藤紙白厚者 夾縫之 以貯所炙茶 使不泄其香也)"라고 하였다. 이는 중당 시기에 차 보관을 어떻게 했는지를 드러낸다. 결국 8세기의 차 보관법은 막 구워낸 차의 향기가 새어 나가지 않게 하는 조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덩이차(餠茶)를 약한 불에 구운 후 가루로 만들어, 이를 끓인 물에 넣는 자다법(煮茶法)이 유행했다. 그러므로 구운 차의 향기가 새어나가거나 다른 향기와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종이봉투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는 초기 차 보존법의 언급으로, 차의 정유(精腴: 차의 풍부한 맛과 향기·기운)가 새어나가지 않게 한 조치였다.

당대엔 종이봉투 넣어 보관
송대 '장다' 개념이 탄생해
조선代 도자기 보관 보편화

육우가 말한 차의 보관법은 종이봉투에 잠시 넣어 둔 것이며, 이때 사용한 종이는 섬현에서 생산된 종이였다. 섬현은 바로 당대의 지명이며, 현재 절강성(浙江省) 승현(嵊縣) 지역이다.

차의 보관법이 장다(藏茶)라는 용어로 정의된 것은 송대(宋代)이다. 앞 시대인 당대에는 구운 차를 잠시 동안 섬등지 종이봉투에 보관하였지만, 송대는 장다라는 용어를 구체화하였다. 이는 장다가 방법, 조건 등 차를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개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오묘한 차의 향기, 맛, 기운을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이론화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장다, 즉 차 보관법의 이론화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 자료는 무엇일까. 이는 1075년경 황유(黃儒)가 〈품다요록(品茶要錄)〉을 저술한 이후 증보한〈품다요록보(品茶要錄補)〉'향기를 두려워하며 (차를 보관하기) 따뜻한 곳이 마땅하다(畏香宜溫)'장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황유의 자료는 채양(蔡襄, 1012~1067)의 〈다록(茶錄)〉'장다(藏茶)'를 인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장다의 개념은 채양에 의해 정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채양이 말한 〈장다〉의 개념과 목적은 무엇일까. 그의 〈다록〉 '장다'의 내용을 살펴보자.

차는 조리대 잎이 마땅하니 향을 두려워해서다. (차는) 따뜻하고 건조한 것을 좋아하고 습하고 찬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차를 보관하는 사람은 조리대 잎으로 다육의 입구를 싸서 봉하여 일차 2~3일 경이 지난 후 숯불을 이용하여 항상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하게 하면 습기를 막을 수 있다. 만약 숯불이 너무 뜨거우면 차가 타서 먹을 수가 없게 된다.
(茶宜箬葉而畏香藥, 喜溫燥而忌濕冷。故收藏之家, 以箬葉封裹入焙中, 兩三日一次, 用火常如人體溫溫, 則御濕潤。若火多則茶焦不可食)

그가 말한 장다, 다시 말해 차 보관의 목적은 습기가 차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습기가 스며들면 차의 정기가 사라져 먹을 수 없는 차가 된다고 보았다. 차의 오묘한 맛과 기세가 습기로 인해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인식했던 것이다. 그가 말한 장다의 조건은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한 곳에서 차를 보관하는 것이다. 바로 차는 따뜻하고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기에 이런 조건에서 차를 보관하여야 차의 진수가 사라지지 않아 오랫동안 오묘한 차의 진기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송대는 단차가 유행했던 시기로, 다육(茶育)에서 차를 보관하였다. 다육은 당대부터 활용하던 것인데, 송대에서도 차를 보관하는 장소로 유용하게 사용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차의 정유를 보존할 뿐 아니라 차의 정기를 증강시키는 장소로 사용된 것이다. 이어 명, 청 시대에도 장다의 중요성은 강조되었다. 하지만 차를 보관하는 방법이 변화되었는데, 이는 도자기에 차를 보관하는 등, 차 보관에 필요한 용구에 변화를 보였다는 점이다.

고려시대 장다는 송나라와 동일한 조건이 요구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고려의 차 보관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문헌 자료는 드물다. 다만 조선시대의 차 보관은 도자기에 넣어 두는 방법이 보편화되었던 정황이 드러난다. 이런 사실은 신위(1769~1845)의 '남다시병서(南茶詩幷序)'에 "초사 이산중이 (초의차) 얻어 강옥의 금령 박영보(1808~1872)에게 보내니 (차를)봉한 백자항아리에는 녹설아라 썼네(苕士得之奇江屋 白　封題綠雪芽)"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㉚

1. 기도(祈禱)와 수행에 대한 마음가짐과 방법으로 틀린 것은?
① 가능한 한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②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해야 한다.
③ 절, 염불, 주력, 참회등 한 가지만 해야 한다.
④ 주변의 모든 이웃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야 한다.
⑤ 불법에 대한 확실한 앎과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해설 : 기도란 간절히 바라는 바를 성취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행위로 모든 종교에서 발견될 수 있으나 불교에서 기도는 수행으로 승화되어 단순히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상적으로 바꾸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으로 불교에서 기도는 일회성이 아닌 반복이 필요하며, 온몸과 마음을 다해야하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행복하고자하는 자비로운 기도를 해야하며, 부처님 법을 확실하게 알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 다만 조계종에서는 기도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2. 조계종의 신도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수지하며, 사찰을 외호해야 한다.
② 법회참석, 보시, 공양을 올리는 등의 신행활동을 해야 한다.
③ 종단의 인가를 받은 불교대학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④ 재적사찰에 신도등록을 해야 하며, 신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⑤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받들고 신도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해설 : 불자로서 조계종 신도는 삼(보)귀의, 오계수지, 사찰외호를 하며, 법회에 참석하여 보시, 공양 등의 신행활동을 하고, 재적사찰에 신도등록을 하고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알고 받들어야 한다. 종단 인가의 불교대학을 다니는 것은 권장되는 사항이나 조계종 신도의 자격요건이지는 않다.

3. 불교 용어의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간경 -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하면서 절을 하는 것이다.
② 도량석 - 사찰에서 스님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일하는 것이다.
③ 사시마지 - 한 달에 한 번 사시(巳時, 오전 9시~11시)에 맞춰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④ 불공 - 불보살님께 음식, 향, 꽃 등의 공양을 올리며 자신의 바람이 성취되기를 발원하는 의례이다.
⑤ 울력 - 사찰에서 아침 예불을 하기 전에 천지 만물을 깨우고 도량을 청정하게 한다는 뜻으로 목탁을 치면서 주위를 도는 의식을 말한다.

해설 : 간경은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보는 것, 도량석은 새벽 기상시간에 사찰 대중을 깨우는 일, 사시마지는 매일 사시에 맞추어 불공을 올리는 일, 울력은 사찰의 구성원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일하는 것을 말한다.

4. 불교의 특징과 수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불교의 수행은 참선이 최고의 지름길이며, 참선을 하지 않고는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 간경이나 염불 등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하는 방편일 뿐이다.
② 불교의 수행은 고행과는 다르다. 과거의 잘못된 업의 결과로 잘못 길들여진 습관을 개선하여 좋은 업을 쌓고, 어리석음을 깨우쳐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③ 불교는 스스로 깨달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제하는 자력의 종교이다. 따라서 남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는 서로에게 수행에 방해가 된다.
④ 불교는 자신의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불성을 깨워 성불할 것을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거나, 남이 잘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깨닫기 전에는 어떠한 행동도 실천에 옮길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진리에 부합하는 지 깨닫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해설 : 불교의 수행은 고행과는 달리 과거의 잘못된 업의 결과로 잘못 길들여진 습관을 개선하여 좋은 업을 쌓고, 어리석음을 깨우쳐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좋은 업을 쌓는 수행으로 불교는 독단적이고 개인적인 방법이 아니라 포용적이고 남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장려한다. ①, ③, ④, ⑤와 같이 하나의 수행만을 고집하거나 자신만의 구원을 우선하고 중요시하는 것은 불교에서 장려하는 수행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 ① ③ ② ③ ③ ④ ④ 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여름 별식 – 망경산사 '도토리 묵사발'



▶한줄 요약
'옛 어른들이 드시던 음식, 자연에서 얻는 음식은 하늘과 닿아있다'는 이야기가 도토리 묵사발 한 그릇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 입, 한 입.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비우고 나면 앞서 다녀간 이들이 왜 이곳을 극락과 같다고 했는지 알 것만 같다.

자연서 얻는 음식은 하늘과 닿아 있다

강원도 영월, 망경대산 깊고 깊은 산중에 극락과 같은 한 도량이 있다고 했다. 협곡 속의 돌산을 사람의 손으로 일구어 사계절 내내 꽃과 열매, 온갖 귀한 풀들이 지지 않는 곳이 있다고.

누가 일구었는지는 쉬이 알 수 없으나, 한 번 다녀온 이들은 누구라도 그곳을 잊지 못해 그리워하고, 반드시 다시 찾고야 만다는 그곳.

'망경산사'의 이름은 그렇게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세상으로 흘러내렸다. 온 산천이 신록으로 물든 여름, 뭇 생명이 가장 뜨겁게 피어나는 이 계절의 망경산사를 찾아 산에 오른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래서 더욱 그리운 극락정토를 향해.

수레를 굴리는 스님들

세계(世界)의 끝은 어디? 자애(慈愛)의 하늘은 넓게도 덮혔는데(중략)/ 새라새롭은 환희(歡喜)를 지어내며, 늘 같은 땅 위에서/(중략) 일리우는 보리밭 속으로/ 호미 들고 들어갔어라, 가즈란히 가즈란히 /걸어 나아가는 기쁨이어, 오오 생명(生命)의/ 향상(向上)이어.

– 김소월, '밭고랑 위에서' 중.

턱, 하고 머리에 얹어진 낡은 밀짚모자, 흙먼지 묻고 땀에 젖은 적삼, 커다란 수레에 방금 전정 작업을 마친 나뭇가지를 한 아름 수레에 이고 가는 하원 스님(망경산사 주지)의 뒷모습은 왜인지 김소월의 시 '밭고랑 위에서'의 한 부분을 떠올리게 한다.

"이것 좀 봐요, 토종 밀이예요. 오래전에는 먹을 것이 없을 때 밀 서리를 했다고 하지요. 절에 오시는 분들한테 서리하는 기쁨을 주고 싶어서 조금 심어놨어요."

익숙한 듯 수레를 비우고, 잠시 짬이 난 스님은 그제야 환한 웃음과 함께 자그마한 밀밭 이야기로 인사를 대신한다. 일부러 이곳을 찾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위해 마련한 밀밭이다.

쭉 뻗은 튼튼한 줄기와 알알이 가득 들어찬 열매, 어른의 허리를 훌쩍 넘도록 잘 자란 그 푸른 밀밭이라면 굳이 허기가 질 때가 아니라도 욕심이 날 법하다. 어디 밀밭뿐일까.

백두대간의 맥을 잇는 해발 1088m의 망경대산, 그 깊은 산의 품에 안겨있는 이 산중 도량은 발 닿고, 눈 닿는 곳마다 스님들이 직접 가꾼 수백 가지의 야생화, 약초, 온갖 수종의 나무들이 산과 하나가 되어 어우러진다.

그런 이유로 이 도량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까지 인지를 짐작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숲으로, 숲을 걷다 보면 다시 우거진 야생화와 산야초 길을 이어 망경산사의 품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그 길과 산 곳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노동하는 스님들의 모습은 망경산사를 상징하는 또 다른 꽃과 나무다.



망경산사의 도토리 묵사발 만들기 재료 | 도토리가루, 생수, 채수, 신김치, 김 가루

만드는 법 | ① 도토리가루와 생수를 6:1 비율로 준비한다. ② 1의 재료를 섞어 30분 정도 불려준다. ③ 처음에는 센 불에 끓여주되, 누르지 않게 한 방향으로 천천히 저어주며 익힌다. ④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천천히 저어가며 익힌다. ⑤ 어느 정도 굳으면 불을 끄고 뚜껑을 덮어 2~3분 뜸을 들인다. ⑥ 낮은 그릇에 담아 냉장고나 실온에 두고 굳혀준다. ⑦ 다양한 채소, 버섯, 다시마를 우린 채수와 취향에 따라 신김치, 김 가루 등과 함께 그릇에 담으면 완성.

꽃대궐이 된 광부의 마을

"망경대산은 한때 1만명이 넘는 주민이 살던 대규모 탄광촌이었습니다. 하지만 탄광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말 그대로 버림받은 땅이 되었지요. 90년대 말, 이곳을 찾은 비구니 스님들께서 수행공동체를 이루며 지금의 모습이 되었어요."

당시 남아 있던 낡은 민가와 마구간, 광부들이 월급을 받아가던 탄광사무실 등을 수리하고, 쓰임에 맞게 지켜온 것이 바로 지금의 대웅전과 공양간, 템플스테이 숙소 등이다.

지금도 도량 곳곳에서 지붕을 손보고, 뙤약볕 아래 풀을 매며, 작물을 수레에 싣고 쉼 없이 움직이는 스님들의 모습. 그 순수한 노동이 쇠락한 폐광촌을 기름지고 푸르른 초목의 대지로 바꾸었으리라.



망경산사는 스님이 직접 가꾼 야생화와 꽃들로 어우러진다. 묵묵히 노동하는 스님들의 모습은 망경산사를 상징하는 또 다른 꽃과 나무다.

이 산에 첫발을 들인 그 날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윗절로 불리는 만경사에서 매일 망경산사를 오가며 땅을 일구는 정우 스님(만경사 주지)은 이곳의 시작을 더욱 생생하게 전한다.

"오롯이 우리 힘으로 자급자족하는 선농일치(禪農一致)의 수행공동체를 일구는 것이 목표였어요. 호미로 하나하나 돌부터 골라냈지요. 처음에는 뭘 심어도 다 비슬비슬 죽어버리고 열매 하나가 안 열렸어요. 하지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그 말이 참 맞아요. 10년간 개간을 하니 비로소 식물이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스스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화학비료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손과 자연에 맡긴 시간. 그렇게 망경산사에는 고도가 높은 계곡에서만 자란다는 처녀치마, 노루귀, 천남성과 동자꽃, 얼레지, 바람꽃과 같은 토종 야생화. 취나물만 40여 종, 50여 종의 희귀 식물들까지 200여 종의 생명이 가득히 모였다.

"사람들이 이곳을 보고 꽃대궐이라고 해요."

도량의 온갖 나물과 꽃들을 막힘없이 설명하고, 수행과 노동의 가치를 설명하던 스님. 아껴둔 보물을 꺼내듯 살며시 전하는 이야기 끝에 잔잔한 웃음이 묻어난다. 산중 극락과 같은 이곳을 향해 쏟아졌을 수많은 치사(致詞)들. 그중 스님의 마음에 고이 자리한 것은 '꽃대궐'이라는 정다운 그 한 마디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자연에 회향하다

선(禪)과 노동이 둘이 아니듯, 꽃과 먹을거리가 다르지 않았다. 계절마다 지천에 올라오는 산나물이며 먹을거리를 갈무리해 두면, 일 년 내내 귀하고, 풍성한 공양을 마주할 수 있었다.

뜨거운 이 여름에 맛보는 '도토리 묵사발'도 망경산사의 자연이 오롯이 담긴 귀한 별식. 이 도토리 묵사발로 말할 것 같으면, 가을철 참나무숲에서 떨어진 열매를 추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먹을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오며 가며 한 줌씩 모은 것이 한 부대가 될 즈음이면 그제야 원주에 있는 방앗간으로 향한다. 이제는 도토리가루를 내어주는 방앗간들이 사라져 영월에서 원주의 장터까지 날 잡고 떠나야 하는것이다.

이른 새벽 오들오들 떨며 방앗간 앞을 지키는 수고까지 거치고 나면, 다시 단단하게 뭉친 가루를 손으로 일일이 부숴내고, 볕 좋은 곳이나 방안에서 며칠을 고슬고슬하게 말려준다. 이렇게 완성된 도토리가루는 담백한 도토리묵으로, 가끔은 메밀과 섞은 수제비, 또 고소한 부침개가 되어 한 해의 밥상을 빛낸다.

오늘 준비된 망경산사의 도토리 묵사발에는 또 하나의 비기가 있으니, 바로 여러 산야초를 푹 우린 채수가 바로 그것. 오늘은 가죽나물과 표고버섯, 가시오가피, 배, 다시마까지 5개 재료가 쓰였다. 넉넉하게 썰어 넣은 도토리묵에 보약이나 다름없는 채수. 그 위에 갓 따온 향기 진한 방아잎을 얹고 잘게 다진 묵은김치, 김 가루까지 솔솔 더해주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귀한 공양이 완성된다.

'옛 어른들이 드시던 음식, 자연에서 얻는 음식은 하늘과 닿아있다'는 하원 스님의 이야기가 눈앞의 한 그릇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한 입, 한 입.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비우고 나니, 앞서 다녀간 이들이 왜 이곳을 극락과 같다고 했는지 알 것만 같았다.

"왜 이렇게 깊은 산중에 꽃밭을 꾸미게 되었는지 다들 물어요. 그건 이곳이 정토, 말 그대로 수행도량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으로 회향을 하는것이지요. 회향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곳에 들어선 분들이 행복하고, 청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수행입니다. 그러니 도량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어요."(정우 스님)

호미를 들고 가지런히 걸어나가는 기쁨을 노래한 옛 시인. 그 시(詩)와 닮은 수행자들의 호미에는 정토의 세상이 맞닿아 있다. 그리하여 누구라도 이 대지를 찾아 오르고, 다시 찾아 오르는 것이다. 〈작가〉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985-9190	H 010-2813-8008
충청지사	유재상		H 010-8341-0560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애고가 오는 거를 오는 대로 밀쳐나가고 타파해가면서 공부하라

정진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질문 요즘 도반들이 안거에 동참하여 정진하는 모습을 보니 부럽기만 합니다. 저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질 않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거든요.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모든 병고액난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걸림 없이 살고 싶은데 정진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늘 걸려 넘어지거든요. 바르게 공부할 수 있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이 지금 병고에 휘달리죠, 또 우환에 휘달리죠, 가난에 휘달리죠. 이렇게 우환이라면 전체 용도가 아마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끄달리는 원인이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죠. 여러분이 그저 살 양으로 애를 쓰는 것도 욕심이거든요. 모든 것을 거기다 맡기고 관리만 하세요. 돈이 많더라도 관리만 하는 겁니다. 자기가 관리인이지 자기가 주인인가요?

물론 다 배우고 나면 주인도 없고 나그네도 없고 시자도 없겠지마는 배울 때는 주인을 딱 잡고, 바로 자기네 가정에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자기 주인 것이지 내 게 아니라 나는 관리를 한다. 회사를 경영한대도 주인이 하는 거고 나는 심부름한다. 우리가 열심히 뛰고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요, 내 마음이 그렇게 놔서 편안하다면 그것이 좌선이에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빠른 세상에, 이렇게 자꾸 발전이 되는 이 세상에, 공업이나 의학이나 천체물리학이나 과학이나 모두 발전이 자꾸자꾸 돼 나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선방에 가서 틀어 앉고 선(禪)을 한다고 틀어 앉아서 몸뚱이를 딱딱 묶어 놓고 있는데, 묶어 놓는 마음도 자기 마음이란 얘기죠. 몸뚱이를 묶어 놓고, 마음을 묶어 놓고 그러고서는 한 발도 떼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보세요. 지금도 당장 보라고요.

아까도 과거니깐 과거 생에 살던 여러분의 집을 지금 가 보세요. 안 보이십니까? 신발장이 어디 놓여 있고, 간장이 어딨고, 초장이 어딨고 그런 것까지도 다 알죠? 그 얼마나 묘한 일입니까? 그걸 홀연히 다 밝게 하시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화두를 쥔다 생각 말고, 놓는다 생각도 말고, 좌선을 한다 생각도 말고, 좌선을 안 한다,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마시고 우리 일상생활 하는 것이 그대로 바로 내 주인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 아프게 들어오는 것도 '주인만이 낫게 할 수 있어.' 주인이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그대로 주인의 심부름이에요. 내고 들이고 하는 것이 다 주인으로 인해서 나간다면 여러분이 병고에 휘달릴 것도 별로 없지 않나. 왜? 30%는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라면 하고, 70%는 자기가 거기에다 충당해서 나간다면,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죽을 때 되면 죽겠죠. 안 그래요? 옷 벗을 때 되면 벗겠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니깐 고통을 그렇게 안 받고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공부하는데 실험할 때는 거기에서 별거 별거 다 나와서 어떠한 뭐가 닥쳐도, 거기다 되놓는, 되입력하는 그 자세로써 나간다면 여러분은 얼마 안 있어서 내면에서 올바로 볼 거다. 올바로 보게 되면 나중에는 둘이 아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진짜 그때서부터 공부라. 그때는 대의정이 나고 말입니다. 의정도 스스로 의정이 나야지 만들어서 의정을 낸다면 그게 의정입니까?

나는 예전에 그때는 아무거나 먹고 그런 때니까, 풀을 뜯어 먹고 입이 써서 힘들곤 했는데 말입니다, 소나무도 위에 난 가지를 똑똑 딸 수가 있나요? 내 목 따는 거 같아서 말입니다. 밑에 나온 그냥 조그만 가지에게 '나 좀 도와줘!' 그러고 따 가지고 선 그걸 먹다 보니깐 떫고 시어서 그냥 입이 하나가 잔뜩 된 거예요. 아, 그래 물을 찾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옹당물이 있는데, 거기가 맑으니까 내 얼굴도 비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가지도 없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뜨려니까 아, 난데없이 내 스승이 말입니다, 내면의 내 스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네 얼굴이 아니라 네 삼촌 얼굴이다.' 이러거든요. 허허허. 그래서 '삼촌?'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보는 순간에 또 금방 화해서 '아이구, 얘! 네 아버지 얼굴인데.' 이러고, 또 '아이구, 네 자식 얼굴이야. 아니, 네 며느리 얼굴인데.' 이러고 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 소리에 그냥 멍멍해진 겁니다.

물을 먹으려고 그러다가 물을 먹는 것도 잊어버린 채, 입이 시고 딱 그냥 한 입 된 게 그게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잊은 채 그냥 멍멍히 생각을 하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가 아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어, 도대체. 그렇게 그냥 빠르게 돌아간다는 게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 '아이구, 아빠 당신 알아서 해!' 그러곤 그냥 탁 놓고는 또 어디쯤 가다 보니까, 만사만생이 다 그냥 있는 게 없고 산천초목의 천차만별 그 초목들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그때 그게 생각 난 겁니다. '아이쿠, 이렇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나한테 배운 거지마는 내가 없더라고요. 내가 없어요. 나도 없고 아빠도 없고. 왜 없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또 이런 생각이 나요. 아하! 예전에 말입니다, 야, 이렇게 묘지가 있는데 '이 묘지는 애비의 묘지고 이거는 자식의 묘진데 이 자식이 이리로 오면 애비가 되고, 요 애비가 자식한테로 가면 자식이 된다' 이거예요. 아,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 체가 없는 마음이 쉴 사이 없이 화해서 바뀌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국에서 "스님, 나 이렇게 이렇게 애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죽겠습니다. 어떡합니까?" 하고 울고 야단들을 할 때 "알았어요." 할 수 있는 그 대답이 나오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떡하면 좋아. 왜 그렇게 한만히 뒀어?" 하며 서로 뛸 겁니다. 그러나 말이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도 나하고 둘이 아니게 심부름꾼이자 부처자, 바로 법신이자 화신이자, 바로 지신이자 용신이자, 관세음보살이자 지장이자, 칠성이자 독성이자 아, 부처이자, 모두가 아니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만 해 놔도 좀 감응이 됩니까?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나하나 체험을 하십시오. 하나하나 탑을 쌓아 올라가는 게 점수라 하면, 다 쌓고 봉오라지 탁 올려놓는 게 돈오예요. 그러니 점수와 돈오는 둘이 아니다. 그러니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다. 돈오다 점수다 이 언어가 붙지 않는다 이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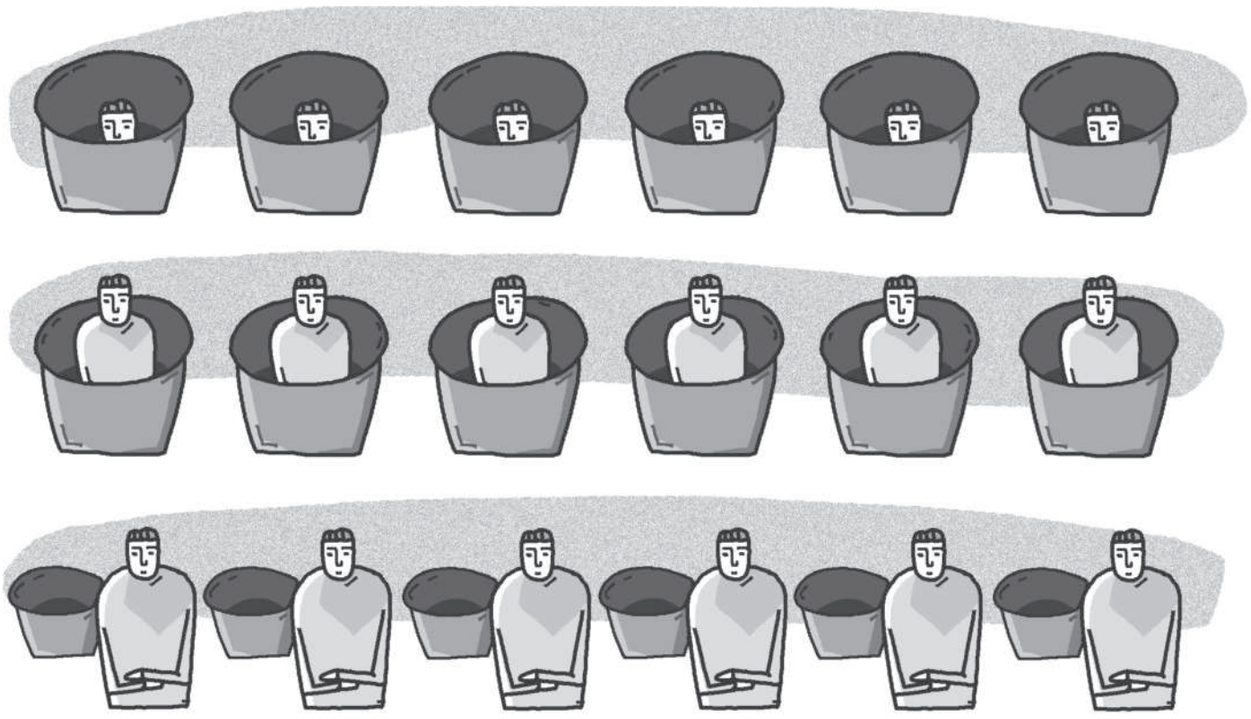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하는 것이 그대로 내 주인이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 19면에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저 모든 걸 지켜보고 관하라 이랬죠? 그러니까 "뭐 지킬 게 있느냐?" 이러죠. "지키는 놈은 어떤 거냐?" 이래요, 또. 그러는데 그대로 자기가 '거기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고 거기 맡겨 놓으면, 맡기는 놈도 그놈이요 지키는 놈도 그놈이다 이겁니다. 지켜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감응이 되고 실험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체험을 거기서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닥쳐오면 갖다 놓고 또 하다 보면 체험이 되고 또 체험이 되고, 그게 바로 하나하나 쌓아서 탑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물리가 터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홀연히 자기를 자기가 알게 되고, 그럭하다 보면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바로 둘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알게 된다 이겁니다.

일상생활 하면서도 열반경지에…

질문 우리 일반 재가 불자들은 스님들처럼 수행 정진하지 못하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견성을 하고 열반에 이를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가 봐야 알고 들어야 알고 그렇듯이 댁에서 겪어 봐야, 실천해 봐야 아마 알 겁니다. 그러니만큼 이치대로 얘기를 하려면, 사람을 다 낳기는 하되 애가 어른 노릇을 못 하니까 어른이 될 때까지 수행 정진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린애도 생산을 못 한 분들이 많습니다. 얼른 쉽게 말하자면, 내 육신이 태어났지 정신이 태어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태어났으면 바로 육신을 이끌어 가는 참나, 즉 정신을 태어나게 하면 그것을 바로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견성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 견성한 자체를 키워야 하니까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몇 년이 걸리든 이 안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체험을 하면서 자꾸자꾸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는 처음에 내가 탄생하기 전에 놓고 들어가듯이 모든 거를 또 놓고 들어가야죠. 내가 탄생한 후에도 이 체험하는 것을 또 놓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둘 아닌 도리를 또 알게 되죠.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되면서 그땐 어른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열반경지에 든다' 이럴 때는 둘 아닌 도리에서 둘 아니게 화해서 나투면서 어느 만물만생이 원하더라도 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내 육신 속의 모든 의식들이 보살로 화해서 나투면서 돼지가 원하면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되고 이렇게…. 모두 중용을 할 수 있는, 광대무변한 법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능할 때, 이것을 도리천에 이르르고 구경경지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그 모두를 그냥 말없이도 할 수 있고 말없이 알 수 있고 이런 것이지, 지금 견성도 못 했는데, 내가 태어나지도 않아서 눈을 뜨고 볼 수도 없는데 그 얘기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얘기만 듣고 아무리 책을 보고 그냥 뭐, 무불통지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물 한 컵을, 물 한 방울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진실되게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필요 없고, 이론도 필요 없고, 무궁무진하게 아는 것도 필요 없다. 오직 내가 나를 발견하고 어른으로 키워서 또 늙어야 된다. 늙으면 생사도 없다. 생사에도 끄달리지 않는다. '없다' 하고 '끄달리지 않는다'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없다' 하는 거는, 아주 그, 들어가서 없다는 건 사실인데, 아래에 있든 중간에 있든 위에 있든 모두 포함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끄달리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 떼어 놓고 한 발 딛고, 내가 귀머거리에서 벗어나고 장님에서 벗어난다면 그때서부터 공부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은 나 찾기에 바쁜 거지, 그리고 나는 세 가지 두 가지를 한데 합쳐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첫 번에 유의 법을 가르치고 두 번째, 무의 법을 가르치고 세 번째, 유와 무를 한데 합쳐서 가르치고 했던 것이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나는 행주좌와를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대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고통이 오고 애고가 오고 병고가 오는데 어떻게 틀고 앉아서 그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애고가 오는 거를 오는 대로 밀쳐 나가고 타파해 가면서 공부를 해라 이겁니다. 그게 아주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겨우 입사했는데 상사 때문에…

질문 저는 몇 년 동안 취업 준비만 하다 일 년 전에 겨우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 저의 직장 상사에 마음이 끄달려 괴롭습니다. 사실 그분이 너무 행동도 거칠고 말도 험해서 그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하고도 업무적으로 부딪치다 보니 억지로 참고는 있으나 대면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다니기가 싫어집니다. 참아야 하는 걸까요?

답변 내 마음을 먼저 보세요. 내 마음이 '저놈!' 하고 엉클어 쥐고 있으면 그쪽에서도 '저놈!' 하고 엉클어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쪽에서 나쁜 말을 해 왔더라도 '아이, 내가 있는 탓이지. 소가 언덕이 없다면 비빌 수가 있을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비볐지.' 그러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나쁘게 생각이 안 듭니다. 모든 게 내 탓으로 돌려지죠. 그럴 때 내 마음이 벌써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벌써 인연의 가설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쪽에서도,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남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여보게, 내가 하도 신경질이 나서 괜히 자네보고 이렇게 나쁜 언행을 했는데 참 미안해."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서로 더 절친해진답니다. 어느 집에서도 자식이 나가서 그 나쁜 일을 저지르고 싸우고 이래 가지고 학교에서 부모한테 오라 가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기에 내가 그랬거든요. "자식이라는 가설이 돼 있으니 당신 주인공의 스위치를 눌러도 거기까지 불이 들어올 거고 그 아들의 주인공에다 맡겨 놔도 당신까지 불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 그렇게 해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그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그래 이놈아, 이렇게 해서 되느냐. 아버지는 벌어다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앨 쓰고 있는데." 뭐,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그 후로는 "얘, 이렇게 늦게 들어왔으니 몸인들 지탱하겠니? 밥은 먹었니? 배고프지 않으냐?" 하고서 좋은 말로 부드럽게 해 주고 웃으면서 과일도 깎아 주고 밥도 차려 주고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 하고,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어머니, 이렇게 나를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계시지 마세요. 인제 내일부터 일찍 들어올게요. 어머니, 어머니 모습이 새삼스럽게 이렇게 참 초라해 보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착해졌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억울함이 있고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거기 맡겨 놓아야 합니다. 맡겨 놓고 '아휴! 저 사람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올바르게 잘 이끌어 가지고 가겠지. 바로 그 길밖엔 없으니까.' 하고선 생각을 해 줄 때에 그 사람은 올바로 가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천을 해 보고 실험을 해 봐야 체험이 되지, 내 말만 듣고 무효로 돌린다면 그건 또 무효죠. 그러니 내가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알았으면 바로 둘이 아닌 까닭에 사랑하고 가르치라 이거죠. 그리고 당겨 주고 실천을 같이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떤 억울함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근본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맡겨 놓고 '어휴, 저 사람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올바르게 이끌어가겠지.
바로 그 길밖엔 없으니까.' 하고선 생각해 줄 때에
그 사람은 올바로 가게 됩니다.

배신감에 용서가 안 돼요

질문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나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후로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가서 너무 괴롭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답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면 몇천 년 몇만 년 사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생 살기를 왜 남한테 그렇게 거북한 생각에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모두를 다 벗어나서 평온하게 사셔야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내, 내가 죽어서 태어날 때 또 그게 붙는단 말입니다. 아주 졸졸이 졸졸이,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게 바로 업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의 그 정자 난자를 받아서 그 본인의 영혼이 들어가서 삼합이 한데 합쳐지는데 그 영혼이 한데 합쳐지는 동시에 업식도 마저 거기 딸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 하나 받는데 몸속에 있는 모든 업식들도 다 거기 짊어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 몸속에 다 짊어지고 나와요. 아주 이 집에다 잔뜩 넣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자라면서 이 업식들도 그냥 같이 자라죠.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끌고 다니는 자기 운전수한테 '차를 잘 끌고 다니게 하고, 위로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잘 넣어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해라 이겁니다.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지 차가 운전수를 끌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깐 차를 잘 부숴뜨리지 않고 조심해서 끌고 다니는 것도 운전수요, 또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잘 넣어 가지고 다녀서 사고 안 나게 하는 것도 바로 운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다가서더라도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도 둘이 아니다. 이 생명의 근본도 둘이 아니요, 마음을 내기 이전도 둘이 아니다. 그러니 다 마음을 밝게 해서 그저 한마음이 되게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자기 운전수에다 맡겨 놓으세요. 그리고 증오심을 버리시고요. 그런 것도 거기다 맡기시고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사량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를 망해 줬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즉 말하자면 그냥 '나는 당신의 시자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남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잘못됐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하여튼 '의합하게 같이 불이 들어와서 같이 밝은 데서 살게끔 당신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맡겼을 때에 그 사람 가슴에 불이 들어와서요, 댁의 마음과 아주 또 저거 해서 나중엔 사과를 해요. 이렇게 더 절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자기 근본, 자기 운전수를 믿고 거기다 맡기는 걸 공부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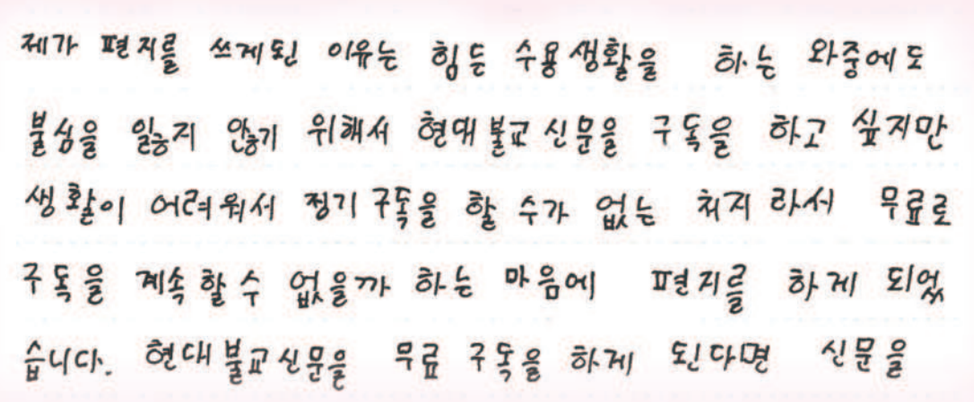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⑮ 부처님께 은혜 갚는 삶

삶의 뿌리를 내려야 잘 산다

필자는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 절에 다니길 좋아했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불교동아리에 들어갔다.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두 동아리가 방 하나를 같이 사용했는데, 워킹테이블에 의자를 놓고 둘러앉아 법회를 모셨다. '불교동아리이면 최소한 절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에, 2학년이 되었을 때 회장을 맡으며 동아리방을 법당으로 꾸몄다.

여학교였던 지라 옆학교 법우들의 도움을 받아 시장에서 스티로폼과 장판을 짊어지고 와서 바닥을 깔았다. 인근 절의 스님께 "저희 동아리방에 부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불단과 불상을 마련해주시고 직접 점안식도 모셔주셨다. 장판 위에서 처음 절을 올리던 그때의 감격이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소박하지만, 기쁘고 행복했던 인생의 첫 불사가 아니었나 싶다. 아침이면 동아리방에서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고 수업에 들어갔다. 매주 법회를 알리는 대자보를 교내 곳곳에 붙이고, 예불을 드리고 법회 모시는 일이 즐거웠다. 시간이 날 적마다 동아리방(법당) 노트에 이렇게 적곤 했다. "지금은 전공 공부에 매진하느라 불교 공부를 제대로 못하지만, 사회에 나가면 꼭 부처님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에 찾아가 불법을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그 원(願)이 성취되어 사회에 나오자마자 법회를 만났다. 건물 벽에 청 테이프로 붙어 있던 창립법회 전단지가 1주일이 지났음에도 떼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던 덕분에 법회를 찾아갈 수 있었다. '문사수법회 창립법회, 회주 한탑 스님'이라고 매직으로 쓰여진 전단지 글자가 지금도 생생하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고, 올해 '문사수 대중법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지난 14일에 담양에 있는 수련도량 정진원 정토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삶과 법회는 따로가 아니어서, 매주 법회를 통해 법문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왔다. 부처님법 상속의 원력으로 문사수법회에서 진행된 인재불사 과정에서 함께 공부하다가 눈이 맞아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렸다. 신혼여행으로 떠난 태국에서 첫날밤에 부부는 '정진하고 공양하고 회향하는 삶'을 약속하며 부처님법을 널리 펼치는 법회에 대한 원을 세웠다. 각자 고건축과 조경을 전공하여 현재 문화재기술자로도 일을 하고 있다.

몇 년 전에 나무만 심으면 다 죽어 나가는 구석기 유적지 현장 일을 맡은 적이 있었다. '건강하고 좋은 나무들이 들어와 죽어 나간다면 이건 뿌리의 문제겠구나' 하는 판단에

인생의 고난은 뿌리 점검하는 기회

불자 뿌리는 부처님 법 실천에 있어

토양을 점검해보니 역시나 배수가 되지 않았다. 대대적인 설계변경을 통해 배수시설을 보강하고 나무를 심었더니 지금까지 잘 살아 있어 보람으로 남는 곳이다. 그만큼 뿌리가 중요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뿌리가 땅속에 잘 내려지면 줄기는 자연히 잘 뻗고, 가지와 잎과 꽃도 어여삐 피어, 열매가 열리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뿌리가 튼튼하다면 꽃과 열매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생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뿌리이지, 겉으로 보이는 꽃과 열매가 아니다. 그런데 뿌리 상태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

삶의 뿌리가 튼튼한지는 어려움과 난관에 맞닥뜨릴 때 비로소 알게 된다. 보이는 현상에 휘둘려 지옥고를 헤매는지, 아니면 나의 아만심을 꺾어주는 공부의 기회로 삼는지 스스로를 보면 안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때 우리 삶의 뿌리가 튼튼함을 알 수 있듯이, 인생의 세찬 바람인 고난과 역경은 뿌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불자 삶의 뿌리는 마음의 중심에 부처님을 모시고 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아닐까 한다. 어려움에 처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신심을 돈독하게 하고 하심하게 해주시려는 부처님의 자비방편으로 받아들일 때 뿌리는 더욱 튼튼하게 내려질 것이다.

법회를 처음 찾아간 날 받아온 작은 책자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라'는 천둥 같은 법문을 들으며 앞으로 공부할 곳이 이곳임을 직감했다. 문사수법회와 함께해온 30년의 소중한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삶의 뿌리와도 같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것이 가장 감사하다.

재작년에 열반하신 한탑 큰스님으로부터 '나의 참생명이 부처님생명'이라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입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열심히만 살다 갈 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나의 진짜 생명이 육신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한한 부처님생명임을 알려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자연과 모든 생명 덕분에 '살려지는' 것이라는 여여 법사님의 법문은 왜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시원한 답을 주셨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려지는 거라고 잘 가르쳐주시니 배운 바대로 그 살려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예경하고 공양 올리고 정진하며 살아갈 뿐이다. 나무아미타불!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㉑ 여름철 위장병 '곽란'

바른 섭생으로 여름철 건강관리를

여름철 건강은 위장 건강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습기가 많아지는 여름철, 흔한 증상 중 하나가 구토와 설사가 반복되는 위장병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곽란이라고 하는데 토사곽란이라고도 합니다. 잘 알려진 질환으로 가성콜레라, 급성 위장염, 식중독 등이 곽란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른 한의학적 예방법과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곽란의 한의학적 원인은 무엇보다도 계절적 특이성을 주원인으로 봅니다. 여름부터 추석 전까지 가마솥과 같은 날씨는 더위와 습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덥기 때문에 찬 것을 원하고 끈적이는 습기 때문에 몸도 무거워지고 식욕저하와 소화불량 수면불량 등의 연속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찬 음식을 많이 먹고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구토와 설사 복통 등 위장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질환은 환자의 체질적 특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평소에 위장이 약한 분, 속이 냉한 분들이 이 증상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또한 여름철 곽란은 초기 증상이 가라앉은 후에도 만성적인 식욕 부진과 근력 감퇴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노약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여름철) 위장 건강관리가 중요하고, 섭생과 식이 관리를 통하여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습니다.

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 가장 먼저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취해야 합니다.

곽란의 원인은 주로 음식과 수면불량으로 인한 피로에 있습니다. 여름철 음식은 뚜렷한 제철음식(잘 익은 과일, 신선한 음식)이어야 하고 차고 날 음식 보다는 따뜻하고 익힌 음식이 안전합니다. 과식과 부패한 음식은 말할 필요도 없이 주의해야겠지요. 수면 중 온도와 습기를 최적화 하는 것은 자기면역력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둘째, 땀과 체온관리입니다. 아무래도 덥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이 경우 선풍기나 에어컨을 찾게 되고 찬 음료를 자주 섭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여름철 섭생에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 망양(陽의 기운을 잃는다) 한다 하여, 오히려 탈수가



차거나 날 것보다는 익힌 음식을

율무·매실차도 건강관리에 도움

되기 쉽고 기초체온 저하와 면역기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여름철 땀은 조금 천천히 마르게 하여 체온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 찬 음료나 날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이 섭생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임상에서 토사곽란이 지속되는 환자분들에게 따뜻하고 담백한 음식이 도움이 되고 위장기능을 정상적으로 빨리 회복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차를 한두 가지 소개해드리면 율무와 매실이 있습니다. 율무는 한약명으로 '의이인'이라고도 하는데 위장의 소화력을 돕고 음식물의 흡수와 배설에 균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몸의 습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 건강유지에 좋습니다. 다만 더운데도 땀이 적게 나는 체질이나 습관적인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실이 있습니다. 시고 따뜻한 성질로 더위를 먹고 땀을 많이 흘리는데 좋고 곽란이 나타날 수 있는 식중독 예방에 좋습니다. 항균 효과가 있어 위장염으로 인한 배탈 설사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입맛을 유지하는데도 좋고요. 단 위산이 많은 경우는 좋지 않고 많이 마시면 치아를 상하게 하니 노년층에서는 특히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사곽란의 후유증, 여름철 대표적인 위장병인 토사곽란은 초기증상이 지나간 후 체력과 근력이 떨어지고 입맛회복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노년층에서 구토 설사를 반복한 후 탈수로 응급실에서 수액 보정 후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방진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수가 있는 경우 혈액 순환이 잘 안되고 기초체온이 떨어지며 타액 분비 감소로 식욕 감퇴가 원인입니다. 여름이라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고 전해질(특히 칼륨)이 풍부한 과일이 좋은데 소화를 고려하여 저녁식사 후에는 되도록 적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 보다는 가벼운 근력 운동이 좋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곽란증은 여름철 위장병이나 콜레라 식중독 등으로 자주 나타날 수 있는데 평소 섭생에 부주의하여 면역기능이 떨어지는 겨우 쉽게 이환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여름철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장 건강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성우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한국불교의 미래 BTN 불교TV

초심자부터 참선 수행자까지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프로그램



마음이 쉬어가는 카페 혜민입니다
방송시간 : 매주 (월)12:00, 22:30 / (토)19:30



송담스님의 이뭣고
방송시간 : 매주 (수)19:00 / (목)08:30 / (일)21:00



불교사용설명서
방송시간 : 매주 (금)09:30, 21:30 / (일)22:00



전설의 법문
방송시간 : 매주 (금)12:00, 23:15 / (일)13: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전법 일기

‘어린이 마음 등불 밝히기’ 원력 내 마음 속 등불도 함께 밝혔다

2023년 1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장으로의 소임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매주 일요일 열리는 범어사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를 권유받았다. 어린이 불자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느껴 고민이 되었으나 뜻깊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해 수락하였다.

2023년 2월의 어느 날, 2022년도 어린이법회 졸업식에서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 아이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있는 나에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몇 살이세요”라며 천진난만하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다. 선생님인 나를 되려 챙겨주려는 아이들의 순수한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다. 이런 아이들의 때 묻지 않은 모습에 도리어 내가 위로를 받고 행복을 느끼곤 한다.

벌써 어린이법회를 맡은 지 2년이 됐다. 불교대학에서 불교는 각자 사람들의 마음 속 등불을 켜주는 것이라 배운 적이 있다. 등불에 대한 비유는 불교 경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은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으로,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의미다. 진정한 등불은 법(法)이고, 법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기에 우리 자신도 세상을 환히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이다.

불교에서 등은 무명(無明)을 밝혀서 지혜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원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등불을 켜고, 이웃을 위한 등불이 되기를 서원한다.

그렇기에 처음 어린이 법회를 맡을 때 목표를 아이들 마음에 등불을 켜주는 것으로 잡았다. 마음에 등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 만나는 어려움 등을 따뜻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또 매 순간 크고 작은 따뜻한 행복으로 삶을 채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어린이법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린 아이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한명, 한명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 같다.

범어사에 처음 방문했을 때, 내가 범어사 어린이법회 지도교사의 소임을 하게 될 것이라 상상이나 했을까? 생각치도 못한 일이다. 인연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새롭고 생각하지 못한 길로 이끌기도 한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매주 일요일 오전마다 늦잠 자고 쉬고 싶을 텐데 성실히 일어나 참석해주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다주시는 자모님들이 감사하기만 하다. 어린이법회 운영 목표였던 아이들 마음에 등불 켜주기는 결국 내 마음속까지 불빛을 비춰주어 삶에 따스함을 주고 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이런 소중한 인연들과 깨달음을 주신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지금 내가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를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지도교사 소임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절에 오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절에 오는 것이 즐겁고 절에 오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법회를 만들고 싶다. 이를 통해, 불교의 미래가 어린이법회 회원들을 통해 더욱 빛나길 간절히 바란다.



장남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 부산지부 회장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⑦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2)

힘으로 소유하는 관계는 ‘왜곡된 사랑’

오늘은 ‘힘’과 ‘연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 상담에는 ‘보이지 않는 충성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정신과 의사가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알콜중독, 폭력, 도박, 외도 등 어린 시절 아이를 힘들게 했던 부모의 역기능적 행동을 그 자녀들이 커서 그대로 재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들은 가장 싫었던 부모의 모습을 반복하는 걸까요?

술을 마실 때마다 아내와 아이를 때리는 아빠가 있습니다. 아이는 커서 절대 아빠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커서 아빠처럼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어린 시절 엄마의 혹독한 비난에 상처받은 딸이 커서는 주변 사람들을 혹독하게 비난하고, 숨쉬기 힘들 정도로 강박적인 아빠에게 자란 아들이 강박적으로 집안을 정리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비논리적인 상황이 ‘무의식’적으로 은밀하게 대물림된다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충성심’입니다.

폭력 가정에서 자란 남자아이는 자기의 소중한 존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동경하고, 여자아이는 ‘연민’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그래 자기가 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약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힘을 경험하려 합니다. 상대에게 굴종을 강요하며 어린 시절 무기력한 자기를 극복하려 합니다. 여자아이는 커서 매를 맞으면서도 그런 남자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가 꼭 어린 시절 매를 맞던, 세상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불쌍한 자기 모습 같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겠다는 ‘힘’과 ‘연민’이 이렇게 역기능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합니다.

알콜중독·폭력 가정 자녀, 같은 행위 ‘대물림’
폭력 가정 남아, ‘힘’ 동경… 약한 가족에 투사
‘보이지 않는 충성심’ 구조 파악해야 연쇄 끊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이야기가 숨어있습니다. 나무가 따듯한 햇살을 받으며 자라듯이 존재는 사랑의 햇살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존재였을 때, 엄마와 아빠의 사랑은 생명의 햇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소중한 존재를 닮아가려 합니다. 내가 그를 닮아가면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이고, 그가 준 상처도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가한 상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용서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을 닮아갈수록 그들이 나를 수용해 줄 것이라는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생명의 근원인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답니다. 부모님을 미워하는 일은 곧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사랑은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생각한 사랑이 상대를 ‘힘’으로 소유하는 것이거나 ‘연민’을 갖는 일이라면, 그것이 왜곡된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살면서 반복되는 역기능적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어린 시절의 재연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평생 고민하는 핵심 주제들이 숨어있습니다. 유령처럼 출몰하는 고통과 충동의 정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일이 바로 고통의 반복과 재연을 멈추는 길입니다. 더는 이유도 모른 채 무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를 수용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랑의 출발이 됩니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문화 생태계’라는 기초체력

찬불동요를 보급하는 좋은 벗 풍경소리 이종만 대표는 7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2024 붓다 콘서트 ‘찬불가 열창대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종만 대표에 따르면 열창대회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종만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대회를 재개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도 명맥을 이어갔던 열창대회가 재정 악화라는 산을 넘을 수 없었던 것이다.

기독교의 찬송가·복음성가·CCM 같이 저작권료를 지급받으며 창착활동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불교의 창작 찬불가·찬불동요는 오로지 개인 원력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소한의 재정 확립 구조가 없다보니 불교문화단체들은 만성 재정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최근 ‘불교 AI뮤직’이 대중들에게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유튜버 곰딴(Gomdan)의 AI뮤직 콘텐츠 ‘반야심경’은 공개 한달 만에 32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유튜브에 불교 AI음악을 검색하면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유행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힙(Hip)한 불교’ 열풍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뉴진 스님, 불교 AI뮤직 등의 유행이 사그라지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좋은 벗 풍경소리의 창작 찬불가·찬불동요, 찬불가 열창대회 같은 가장 기본적인 콘텐츠들이다. 창작활동이 생업인 작가, 크리에이터들이 꾸준하게 불교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장(場)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불교계는 ‘문화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화 생태계’는 일종의 기초체력이자 기반이다. 단단한 기반 없이 지어진 건물은 ‘사상누각’일 수 밖에 없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외면한 무릎 통증이 탈골·인대파열
수술비보다 걱정 앞선 ‘가족 생계’

네팔노동자 수딥 씨, 공장일하다 무릎 다쳐
병원비만 1500만원…치료 중단하고 퇴원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고른 비에 작물 자라듯…

현불논단



명법 스님
해인사 국일암 감원

장마철이다. 쉼 없이 내린 장맛비에 텃밭 작물은 아침에 열린 열매를 저녁에 따먹어도 좋을 정도로 풍성하다. 오이, 호박, 가지, 고추 등 저마다 제몫만큼 자란다.

얼마 전 유튜브 채널에서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인터뷰를 보았다. 젊은 나이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음악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 젊은 음악가는 함께 음악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서 가장 큰 배움과 영감을 얻는다고 한다. 나는 거기서 한국 음악의 수준을 가늠할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같이 어울리며 고민을 나누고 서로 영감과 자극을 주고받는 동료의 존재, 이전 세대의 음악신동에게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19세기 파리는 모든 예술가가 선망하는 도시였다. 네덜란드인 고호와 폴란드인 쇼팽도 파리로 몰려간 것은 파리라면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 줄 평론가와 관객이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렇게 유럽 전역에서 모여든 천재들이 열정적으로 새로운 예술을 만들면 평론가와 관객들이 환호하는 분위기는 마치 장맛비처럼 그들 모두를 쑥쑥 자라게 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인 예술가도 파리로, 뉴욕으로 떠나지만 그들에겐 예술세계를 나눌 한국인 친구들이 있으니 머지않은 장래에 서울과 평창, 통영이 새로운 문화의 산실이 되리라는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은가.

10여년 전, 오랜만에 대학동기를 만났더니 유수한 국제광고제에 한국 광고작품을 출품하는

임윤찬 "또래 친구에게 배움과 영감"
각계 전반 평가 학연 지연이 치우쳐
좋은 인재 선발, 공정한 평가서 비롯

일을 하고 있었다. 광고주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 광고작품 수준이 낮아지는데 국내에는 이를 공정하게 작품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고육책으로 국제광고제에 한국 작품을 출품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국제콩쿠르에서 수상해야 실력을 인정받는 음악계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 후 한국 작품이 수상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고 친구의 판단이 적실했던지 광고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한국 문화의 위상도 몰라볼 정도로 높아졌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인 예술가들도 많고 K-pop 등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세계인들도 많아졌지만 우리 문화의 토양은 여전히 척박하다. 얼마 전 국가대표팀 축구감독을 선임하는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웠다. 스포츠계, 예술계, 학계 등등 사회 전반의 평가 체계가 아직도 정실과 인맥에 좌우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러한데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일부 지방자치제에서 선정하는 고장을 대표하는 장인이나 상품을 선정하는 과정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누가 평가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문화적 역량이 국가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졌다. 좋은 인재를 불러 모으려면 그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평가는 누가 하는가? 대중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평가는 전문가 집단에서 이루어진다. 오랜 기간 서로의 활동과 실력, 인성 등을 지켜보았던 전문가 집단의 평가가 외부인의 평가보다 더 정확할 수밖에 없다.

임윤찬이라는 천재가 또래 천재 집단 속에서 배출된다. 공정한 평가 시스템과 자유로운 창작 환경이 조성된다면, 고른 비에 텃밭 작물이 자라듯 우리의 문화적 역량도 일취월장하게 될 것이다.

자유, 몸에서 시작하자

세간과 출세간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막막해요." "답답해요." 삶에서 도전을 만난 사람들의 표현이다. 건강 문제나 불편한 대인 관계에서, 학업이나 취업 앞에, 창작이나 직업에서 경험하는 괴로움이다.

팔리어 낄레사(kilesa)는 윤회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고대 번역가는 낄레사를 '번뇌(煩惱)'로 한역했다. 우리는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인 열반(니르바나)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한다.

번뇌란 무엇인가? 너무 익숙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가? 한글세대에게 번뇌란 무엇인가? 번뇌는 '고통스러운 감정, 파괴적인 감정, 불안한 감정, 마음의 독'이다. 이것은 세포에 저장되기 때문에 온몸으로 퍼진다. 불법(佛法)을 심리학의 언어로 서양에 소개한 핵심적인 인물인 쵸감 트룽파(1939~1987)는 번뇌를 신경증(神經症, 노이로제)으로 소개했다.

신경증은 심리적 원인으로 인해 정신이나 신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마음이 괴로운데 왜 몸도 고통스러울까? 심리적 고통은 신체적 고통과 동일한 신경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신경증은 주로 불안정한 인간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이다. 좋은 관계를 경험해야만 치료할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접촉하는 대상은 엄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엄마와 경험한 관계는 향후 모든 관계의 원형이 된다.

부정적 감정들 몸이 모두 기억
부처님 설한 사념처 수행 해결
감정 확인해 갈길 가도록 하자

신경증의 증상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많이 신체라는 저장고에 쌓였는지의 차이다.

문제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를 기억(sati)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학대나 폭행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의 싸움을 목격하거나 정서적 방치 등 불안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사건은 억압되어 무의식 상태로 남게 된다. 이것은 자아의 방어 기제로 인해 의식하지 못한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자각하기가 어렵고, 이것에 사로잡히면 빠져나오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화를 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이제 가벼워졌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그 감정은 증식하고 반복된다. 그리고 분노 이면의 불안이나 두려운 감정은 알아차릴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뿌리 뽑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불행 중 다행으로 몸은 기억한다. 그러니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사념처(四念處) 수행으로 해결해보자. 힘들고 괴로우면 먼저 ①주의를 자신의 몸에 두고 호흡을 관찰하자. 이때 ②몸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각이나 감정을 알아차리고, ③자신도 모르게 방어하는 대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라. 그리고 ④그 느낌과 함께 있으면서 경험(체험)하자. ⑤그 느낌을 멋진 것으로 바꾸려고 하거나 어떻게 하려는 노력 없이, ⑥그 감정이 제 갈 길을 가도록 놓아두자. 이것이 해방 기제, 즉 해탈(자유)로 가는 원리이다.

社 說

신임 대통령실불자회장 취임에 부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실불자회 제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통령실불자회는 7월 24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3대 대통령실불자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홍철호 신임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불교와의 동행"을 약속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부처님 자녀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겠다"며 "국민의 안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철호 회장은 독실한 신심을 가진 불자로 알려졌다. 2014년 경기 김포시 보궐선거에 당선돼 의정활동에 임하면서도, 불자 기업인 봉사단체 '보현선행회'를 꾸려 나눔을 실천해 왔다. 불법의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에서 이름을 따온 '보현선행회'는 이웃돕기 1080배와 문화행사, 장학금 전달식 등 해마다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자비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가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그런 만큼 공명정대한 자세로 공무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불교의 가교 역할을 하며 불교 현안들을 해결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당장 오는 9월 28일 불교계의 역량이 집중되는 불교도 대법회가 예정돼 있다. 이날 취임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K-선명상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홍철호 신임 회장이 취임한 대통령실불자회가 불교계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불교 현안 해결과 국민 행복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

'사찰음식 장인' 제도에 거는 기대

사찰음식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장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7월 23일 '제1회 사찰음식 장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장인 1급 6명과 2급 13명 등 총 19명의 스님에게 사찰음식 장인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찰음식 전문성을 인정해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사찰음식을 보급·계승하는 활동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사찰음식 장인은 2단계 과정을 통해 1급과 2급이 구분된다. 우선 문화사업단에서 각 급수 대상자를 경력·추천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장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위촉된다.

이에 따라 사찰음식 자격제도는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장인 2급, 장인 1급, 명장 순으로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만당 스님은 "장인 1급·2급 스님들 가운데 명장 위촉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사업단이 장인 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사찰음식 명장 자격제도'와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제도'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문조리사 자격 취득한 이후 명장 자격을 받기까지 간극이 너무 커 경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제도 장인 개설로 사찰음식 전문가 양성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찰음식은 한국불교만의 고유한 식문화이다. 기후 위기 시대, 청빈을 바탕으로 한 사찰음식 정신은 더욱 필요하다. 이번 장인 제도 개설로 사찰음식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전문가들이 꾸준히 육성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7월 31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2024하계 종도 연수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중국 남경 서화사에서 승랑대조사 다례재 등을 봉행하는 2024 하계 종도 연수를 진행하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8년(2024) 7월 3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7월 31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2024 어싱Earthing 제품 특판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베이지

어싱 매트·베개·방석 특판 할인

오직 들꽃잠이 엄선한 그래핀 신소재로
전하는 깊고 진한 우리 몸의 가장 건강한 열 에너지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S ~~판매가 1,880,000~~ ⇒ 할인가 1,780,000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Q ~~판매가 2,250,000~~ ⇒ 할인가 1,980,000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어싱(접지)코드 포함]
~~판매가 120,000~~ ⇒ 할인가 84,000



좌훈 음파 케겔 운동기
~~판매가 1,200,000~~ ⇒ 할인가 1,080,000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